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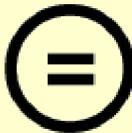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老人福祉 實踐方案에 관한 研究

－ 佛教老人福祉施設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徐 丙 鎮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佛教社會福祉學科

申 榮 德(曉潭)

2011

碩士學位論文

老人福祉 實踐方案에 관한 研究

－ 佛教老人福祉施設을 中心으로 －

申 榮 德(曉潭)

指導教授 徐 丙 鎮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일

신영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1년 6월 일

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東國大學校 佛教大學院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노인복지실천의 필요성	7
1.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문제	7
2. 노인복지의 개념	23
3. 노인복지실천의 현황	24
제2절 불교사회복지의 개념	30
1. 불교사회복지의 개념	30
2. 불교사회복지의 사상	36
3. 불교노인복지의 경전적 근거	58
4. 불교노인복지의 이념과 필요성	62
제3절 불교노인복지시설의 현황	66
1. 불교노인복지시설의 개념	66
2.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전개 과정	66
3.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	70

제4절 선행연구.....	79
제3장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사례연구.....	81
제1절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사례연구.....	81
1. 불교노인복지시설로서의 연꽃마을의 활동.....	81
2. 불교노인복지시설로서의 인덕원의 활동.....	85
제2절 실천사례에 나타난 불교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1. 불교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89
2. 불교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92
제4장 노인복지실천에 있어서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96
제1절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96
1. 불교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다양화.....	96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서비스의 연계.....	97
3. 불교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보편화.....	98
4. 불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	99
제2절 불교노인복지시설과 종단의 관계.....	102
1. 직영시설 확보 및 운영방안.....	102
2. 불교노인복지의 전달체계 확충.....	103
3. 사회복지 공급체계에서의 위상정립.....	103
4. 불교노인복지 시설의 사회화.....	104

제3절 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104
1.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제도적 지원·····	104
2. 예방과 증진서비스의 불교 역할·····	107
3. 불교노인복지시설의 확충·····	107
4. 시설보호서비스의 내용 향상·····	108
5. 정부 및 종단의 책임성 강화·····	108
 제5장 결론 및 제언·····	 109
 참고문헌·····	 114
 ABSTRACT·····	 117

표 목 차

<표 2-1> 한국 직장인의 연령대별 근무기간 및 정년 후 기간 비교·····	9
<표 2-2>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10
<표 2-3>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	13
<표 2-4> 2008 년도 노인자살 현황·····	21
<표 2-5>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25
<표 2-6>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27
<표 2-7>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8
<표 2-8> 노인재가복지시설 현황·····	29
<표 2-9> 노인복지법 제정당시 시설분류·····	68
<표 2-10>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집단 현황(2009)·	72
<표 2-11>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수의 변화추이·····	73
<표 2-12>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현황(2009)·····	75
<표 2-13> 응답시설의 시설유형별 운영 현황(2009)·····	75
<표 2-14> 조사용답시설의 시설유형별 지역 분포(2009)·····	76

그림목차

<그림 2-1>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집단 현황.....	74
<그림 2-2>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변화추이.....	74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研究의 目的

現代 産業社會의 特徵이라 할 수 있는 都市化, 核家族化 및 人口의 高齡化에 따른 老人問題는 우리나라에서도 必然的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 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고령화 속도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복하고 고령사회를 적응하는데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보장 부담 및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産業化·都市化·情報社會로의 이행, 사회변동, 가족구조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이자 결정권자였던 노인의 지위를 弱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疎外階層으로 전락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老人問題가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全 世界的인 社會問題로 대두되었다. 서구사회는 비교적 긴 기간을 두고 高齡社會에 적응해오며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지기반을 준비해 온 반면에, 우리는 30年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인문제가 대두되어

충분한 여건마련이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제 老人問題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문제의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제발전의 그늘에 가려져있던 노인문제가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노인문제에 대해 ‘敬老孝親’ 規範을 가지고 추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制度的 次元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佛敎의 기본적인 사상은 ‘慈悲’다. 불교의 가장 근본정신은 ‘慈悲의 實踐’이기에, 불교인구 중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불교가 노인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當爲性이 제기되는 현실이다.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노인복지 서비스를 수급할 필요가 있는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불교교리에 바탕을 둔 노인복지실천의 必要性이 요구된다는 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韓國 佛敎는 사회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에 本 研究의 目的은 高齡社會를 대비하여 佛敎的 思想에 입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불교노인복지시설의 活性化 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老人들은 宗教生活을 통해서 평생에 걸친 正體性을 재정립할 수 있고, 홀로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평생의 심리사회적 긴장들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自我實現을 위한 궁

극적인 목표이건 집단에의 소속으로부터 오는 慰安感을 얻기 위한 수단적인 목표이건 宗教는 노인들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寺刹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들을 위한 법회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으나 老人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寺刹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本 考의 目的은 신도 비율로 볼 때 고령자 층이 타종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佛敎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의 實踐 方案과 代案을 탐색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佛敎는 一切衆生의 救濟를 기반으로 하며 조화로운 精神 共同體의 實現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널리 세상의 평화와 복지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점이 곧 佛敎社會福祉의 目標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研究의 方法

人間에게는 누구나 生老病死의 苦痛이 있으며 老人에게는 孤獨, 無爲疾病, 貧困의 四苦에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老人問題는 노인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비해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교신자들 가운데 노인들이 많은 데 비해 노인복지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活性化해야 할 복지사업 가운데 한 분야라고 하겠다.

佛敎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라는 根本問題의 提示와 그 解決

에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광의의 社會福祉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佛教社會福祉는 그 根底에 있어서 涅槃을 指向하는 自由와 正法受容의 대가없는 布施를 통해 利他的 사회, 상호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解脫에 목표를 두어 보다 이상적인 사회의 건설을 지향한다. 현대의 사회복지의 과거의 단순한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며 전문지식과 기술 및 방법을 요하는 전문분야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사회복지도 宗教的 特性을 살리면서 佛教的 價値觀에 입각한 이념적 가치가 정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 및 사회현상을 客觀적으로 糾明하고 복지적 전문지식과 기술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사회복지가 사후 해결책인 것에 비해 불교사회복지의 특징은 사전 예방책의 성격이 강하고 도덕·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보다 專門的인 研究體系가 이루어져야 한다.

佛教社會福祉는 사회복지를 불교학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 불교와 사회복지의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불교를 주체로 하는 복지활동이라 할 수 있다. 불교사상에서 비롯된 利他精神의 菩薩思想·慈悲思想 등은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천들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佛教의 現代化와 社會化로 좀 더 指向될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는 文獻研究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佛教經典에서 耑다의 老人觀과 불교의 孝 思想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노인에 대한 이해에 따른 문제점과 活性化 方案과 노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尊嚴性,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교계가 대비해야 할 정책

과 제도, 실천방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 자료는 佛敎經典外에 기존의 노인문제와 관련된 단행본, 학위논문과 학술 논문, 정기 간행물, 세미나 자료,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우선 불교의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經典的 근거와 體系를 이해하면서 그것이 제시하는 實踐的인 方法論을 각 기능에 맞게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경전을 기준으로 불교사회복지의 思想的 흐름을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사상적 기준을 통한 실천을 각 영역에 적용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실천들을 토대로 불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을 전망하면서 여기에 대응한 불교노인복지의 실천을 현대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연구범위를 두고자 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불교 사회복지사상을 경전에 나타난 교설을 중심으로 大乘 菩薩思想·慈悲思想·緣起思想 등을 살펴 불교적 사회복지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불교 사회복지사상의 必然性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實踐的 當爲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불교노인복지 시설의 현황과 諸 問題를 살펴보고 그 代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불교노인복지의 실천을 통한 改善方案으로서, 현재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과 實踐方案을 研究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4장은 불교노인복지시설의 實踐方案으로서, 불교 사회복지사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불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을 전망하여 불교노인복지의 실천이 현대적으로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그 代案을 제시해 보려한다. 5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을 압축 요약할 것이다. 끝으로 앞서 연구된 내용을 분석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방법과 서술에 있어서는 차례대로 連繫性을 갖도록 하며, 본 연구논문은 불교사회복지의 사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각의 실천적 기능의 측면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불교사회복지가 현대에 맞게 實踐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려고 한다.

現代社會는 國際化·情報化의 時代이고 또한 超 高齡化時代의 도래가 예상되니 만큼 이에 따른 접근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과정에 맞추어 불교사회복지도 더불어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의 이론과 實踐方法에 대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제 2 장 理論的 背景

제 1 절 老人福祉實踐의 必要性

1. 高齡化에 따른 老人의 問題

老人이 一般的으로 겪는 문제를 대별하면, 직장 은퇴 후 소득상실에 따른 經濟的 問題, 신체노화에 따른 적응능력 저하 및 건강악화 등의 健康問題,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孤立과 疎外의 問題, 그리고 사회 및 人間關係의 斷絶에 따른 역할상실과 여가활용의 문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老人問題 가운데 2005년 65세 이상 연령층의 44.6%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았고, ‘건강문제’는 30.1%, ‘외로움·소외감’은 6.4%가 꼽았다. ‘건강문제’가 노인계층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던 2002년과 비교해볼 때 ‘경제적 어려움’이 당시의 33.9%보다 10.7%포인트 늘어나 노인계층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됐으며, 건강문제는 오히려 1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¹⁾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일어난 사회문제 중 노인에 관련된 문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核家族化, 匿名性 및 失業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1) 권승 외 3인(2008) p.93.

되었다. 이는 高齡化하면 할수록 격차가 더욱 심해져서 부부가 노후에까지 동고동락할 수 없는 孤獨한 生活을 하게 된다.

1) 經濟的 問題

한국 老人의 貧困原因은 社會的 要因이라 할 수 있는 영세농출신의 도시유입, 사회보장제도의 미발달, 빈곤의 세습화현상과 歷史的 要因인 해방 후 월남난민, 6.25 전쟁이후의 도시빈곤층형성등과 個人的 要因인 동기부족,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저 교육수준, 가구원의 사망, 폐질, 불구, 부적응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형성된 것이다.²⁾

한국 빈곤노인의 환경적 변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노인은 고령일수록 수입이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빈곤하다.

또한 經濟的 問題는 노인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는 퇴직에 의한 소득상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년 기준으로 56.6세인 평균정년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수명을 감안하면 현재 55세인 사람은 향후 20년 이상을 직장 없이 살아야 한다. 더욱이 45세 정년의 의미인 ‘사오정’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요즘, 앞으로 노년층에 편입될 사람들의 경제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년층의 經濟的 問題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根本的인 原因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1988년 처음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11년이 지난 1999년 全國民연금제도가 시행되

2) 황진수(2005) 현대복지행정론 참조.

었으나 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과 노령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의 수는 여전히 적은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06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공적연금수급자는 737,000명으로 16.8%에 머물렀다.³⁾

<표 2-1> 한국 직장인의 연령대별 근무기간 및 정년 후 기간 비교

현재 연령	향후 근무기간	평균 정년	예상 평균수명	정년 이후 예상 추가수명
35세	22년	56.2세	85세	28.5 ~ 30.5년
40세	17년		83세	26.5 ~ 28.5년
45세	12년		81세	24.5 ~ 26.5년
50세	7년		79세	22.5 ~ 24.5년
55세	2년		77세	20.5 ~ 22.5년

자료 : 노동부(2002)

한편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확산으로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많은 실정이다. 여성 노인은 노인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불리함을 지닌 계층이다. 또한 여성 노인들이 살아온 시대는 성차별이 심하고 교육과 취업에 많은 제한을 한 시대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남성 노인들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증대된다.⁴⁾

3) 권승 외3인(2008) p.94.

4) 서병진(2010) p.291.

2) 健康의 問題

老年期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쇠퇴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현상이다. 줄기세포, 인간 게놈지도 등 생명공학과 의학의 비약적인 발달과 충분한 영양 공급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결과적으로 노인인구의 급증과 有病長壽를 가져왔고 노인들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2007년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 한국노인의 질병력과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78%가 1개 이상, 46.8%는 2개 이상, 23.1%는 3개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인들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통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만성질환은 경제적 빈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노인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2> 노인 의료비 증가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표 2-2>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인 월 진료비(원)	91,677	103,568	114,203	129,124	150,400	173,217	189,985
노인 진료비(억원)	36,357	44,008	51,364	60,731	73,504	91,189	104,310
전체 진료비(억원)	188,378	206,610	224,297	248,898	283,799	323,365	348,457
노인진료비 구성비(%)	19.3	21.3	22.9	24.4	25.9	28.2	29.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200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적자 폭이 1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나 보험료 수가인상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 같은 재정 추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건보재정은 지난 2009년 32억 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 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누적 수지가 9,500억여 원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적자규모는 오는 2013년 1조 5,000억여 원으로 크게 불어나고 2014년 3조 1,000억여 원, 2015년 4조 7,007억여 원으로 해마다 1조 5,000억 원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65살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급여비 지출이 내년 13조 4,000억 원에서 2020년 32조 2,000억 원, 2030년 70조 3,000억 원으로 18년 만에 5.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다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낮은 정부지원 등으로 인해 계속 적자와 흑자를 반복해오던 건보 재정이 앞으로는 적자 규모를 계속 키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전제된 가운데 健保料 부과체계 개선, 주류 등 목적세 신설, 국고보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부당청구방지시스템 개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욱이 高齡化의 進展으로 치매노인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할 요양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치매를 포함한 노인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전문적 치료와 보호는 물론 이들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줄 제도 마련과 시설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가구규모의 축소,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 등에 따른 전반적 가족부양능력의 저하와 함께 노인성 질환의 長期 노인의 건강문제는 중요한 個人的·社會的 問題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3) 役割 喪失 및 餘暇問題

老人은 사회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므로 뚜렷한 역할이 없으며 또 가정에서도 노인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다.

現代 産業化社會는 경험, 연륜보다는 고도의 지식과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젊은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경쟁에 뒤지게 된다. 한국의 민간기업 퇴직연령이 55세 전후이다. 연령의 제한으로 노동시장에서 강제 퇴출된 노인들은 직업적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며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던 생계유지자의 역할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노령기에 적절한 역할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역할상실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퇴직 후 노년기는 길어지고 있으나 노인들은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은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사회에서의 노인여가 프로그램 미성숙으로 인하여 노인은 갈 곳이 없는 것이다.⁵⁾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방법도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바둑, 장기, 화투 등 제한된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노인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재는 노인들로 하여금 길어진 노령

5) 황진수(2005) p.31.

기를 건전하게 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심각한 여가문제를 야기시킨다.

<표 2-3>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 (단위 : %)

	TV시 청 라디오	여행	바둑 화투	운동	독서 영화	봉사 활동	사교 모임	가족과 함께 보냄	기타
65~69세	59.1	10.5	2.7	5.2	1.7	1.5	13.8	4.4	1.1
70~79세	63.7	6.0	2.7	3.1	2.0	0.7	16.1	4.5	1.3
80세 이상	72.3	1.8	2.4	1.0	1.2	0.4	11.8	6.5	2.5

4) 孤獨과 疎外問題

現代 産業化의 特徵 중의 하나인 都市化는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 유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세대 간의 공간적 격리와 함께 노인층의 지리적 고립은 심리적 고립으로 연결되고, 이 거리감은 자녀세대와 대화의 단절을 가져와서 노인들에게 孤獨感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심지어 함께 동거하는 자녀와 대화의 기회가 없어 별거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노인도 상당수 있다.

통계적으로 노인 중 77.3%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자녀들과 만나는 반면, 27.8%는 형제, 자매는 특별한 경우에만 만나고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도 12.4%에 달하고 있다.⁶⁾

특히 자녀와의 별거와 배우자와의 死別은 노인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심화시킨다. 실제로 전체 노인 가구 중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은 1995년

6) 정경희 외(2004)요약.

36.6%에서 2000년 44.9%, 2004년 51.2%에 이르렀고 1994년 이후 자녀동거가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장남동거노부모 부양이 더 이상 우리사회의 보편적 노인 부양형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老人의 孤獨과 疎外現象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⁷⁾

5) 老人 虐待

老人虐待(elder abuse)는 신체 손상이나 정신적 고통, 이유 없는 감금 등의 고의적 가해, 신체나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에 의해 고의적으로 박탈당한 것을 말하며, 고의성에 따라 방임(또는 경시)과 학대로 구분된다. 노인 학대와 방임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혹은 감정적 학대, 인권의 침해, 금전상의 학대, 신체적 방임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 등의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에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⁸⁾ 가족 내의 인식과 구조변화로 인하여 노인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老人虐待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物質 中心的 思考에 起因한다. 인간중심이 물질중심으로 흐르고, 忠孝思想의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가족 시스템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분열이 일어나 1人家口가 일반화되었다. 가정과 사회의 핵분열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지혜의 대상으로 사랑받던 존재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

7) 권승 외 3인(2008) p.96.

8) 서병진(2008) pp.131~133.

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문화가 등장하면서 더욱 소외계층으로 전락했다.

社會經濟的 文化的 變化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없는 노인은 부양과 존경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대책이 시급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관심이 모아지는 영역이 노인 학대이다. 노인학대가 단지 현대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오랜 세월 가정과 시설 내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가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국의 노인 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어지는 배경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인구학적 측면의 변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관 및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그리고 급증하는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의 부족 등이 학대 발생 및 노출의 구체적 背景要因이 된다. 동시에 최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정 내 폭력문제가 社會的 問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재가 복지가 인식되면서 가정 내에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가 노출되기 시작한 것도 학대 급증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외국의 경우 노인학대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 후반이고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우리나라에서는 학대라는 개념자체 마저도 생소한 것이었고 우리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계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대중매체를 통해 1990년대 중반 노인학대의 실상이 부분적이거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노인 학대에 대한 책임을 개인·가족에게만 돌리지 않고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보편적 문제로 합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분석에 따르면 2006년 3,675건, 2007년 3,805건, 2008년 3,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언어·정서적 학대가 1,561건(4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학대 874건(22.4%), 방임 839건(21.5%), 재정적 학대 446건(1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⁹⁾

노인인구 5백만 시대에서 노인 학대 3,000명의 통계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여긴다. 가정적 학대뿐만 아니라 社會的 虐待도 추방되어야한다.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노인존재가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학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을 일로 삼는 현실이 안타깝다. 점심식사 12시를 맞춰서 11시부터 기다리고 서 있는 현실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活性化 되어야하는 게 이러한 이유이다.

또한 사회에서 거론되는 老人人權은 상당부분 경제적 소외계층의 의미를 함축한다. 또한 人間 中心的 노인인권보다는 政治的 人權의 경향을 보인다.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핵분열을 당한 노인 존재가치의 회복이 절실하다.

학대 사례의 주체 가운데 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딸과 며느리와 배우자 孫 子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받는 노인들 중에는 신체적 학대로 인해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수십 건이 된다는 것이다. 노인이 학대를 받아도 내색을

9) 서병진(2010) P.293.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의 노인 학대는 접수된 건수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노인 학대는 중산층이나 高소득층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보더라도 꼭 못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노인 학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노인 학대를 없애나가야 한다.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을 높이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부모학대의 인면수심을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병원, 복지시설, 빈집... 버려지는 부모들 '현대판 고려장' 급증

김정훈기자 runto@chosun.com

인천=이용수기자 hejsue@chosun.com

입력 : 2004.11.14 18:23 51'

“이○○씨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인 이모(82)씨는 작년 말 인천 남동구 S복지시설에 들어오면서 두 딸이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시설에 맡긴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식인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식 포기 각서’인 셈이다.

몇 차례 이씨가 “딸네 집으로 가겠다”고 우겨 찾아갔지만 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나중엔 이사를 가버렸다. 그 후 어렵게 연락이 된 손녀들도 “그 할머니는 우리 엄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가족 해체와 이기주의, 평균 수명 연장 등 구조적인 문제가 극심한 경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자식이 병원이나 외딴 집에 부모를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늘고 있다.

가정의 노인 학대와 사회적 학대는 물질과 사회로 해결할 수 없다. 노인 스스로 자기의 주체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공동체적 개념에서 사회 주체가 되어야한다. 노인은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 능력을 발굴해주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 큰 것이다. 물질중심의 복지가 인간중심으

로 바뀌어야 하고 사회 의존적 존재가 사회 독립적 주체로 바뀌어야 한다. 5백만 노인인구는 또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학대받는 노인과 노인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 학대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6) 老年期の性

性は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인들도 성적 갈등을 일으키는 마찬가지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老人性相談室’에 접수된 老年의 성 고민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 건수 2,421건 중 노년 부부의 성 갈등이 473건으로 전체의 19.5% 를 차지했다. 그만큼 性問題가 노인들에게도 심각하다는 얘기다.

특히 남성 노인은 가끔 성 관계를 하고 싶어도 아내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반면에 여성 노인은 몸이 아픈데 남편이 성 관계를 요구해 괴롭다고 호소한다. 노년의 성 갈등은 통상 50代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신체·심리적 변화를 무시한 성적 요구가 자칫 가정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성적 갈등이 심해지면 남편의 외도나 성매매로 이어지고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황혼 이혼의 사유 중에는 이 같은 성적 갈등도 상당히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성 문제가 겉으로 쉽게 드러낼 수 없는 현실적 환경이 있지만 이런 노년의 성 갈등도 이제 論議의 場으로 나와야 할 때이다.

老年의 性は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변천해 가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

제이기도 하다. 性生活의 斷絶과 疎外로 因하여 발생하는 치매나 노인병의 증가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가를 필요로 한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남자 노인의 89.4%, 여성 노인의 30.9%가 정상적인 성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66~70세 노년층의 62%가 월 1회 이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대체로 무난한 성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라면 성적 능력을 갖춘 남자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비율이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일부 남성 노인들의 경우 유원지나 노인 공원에서의 매매춘으로 인해 성병을 얻어 말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음이 보도된바가 있다. 성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혼자 사는 노인들의 성욕해결 방안으로는 오직 재혼 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재혼에 찬성하는 자녀는 35% 어머니의 재혼에 찬성하는 자녀는 14.8%에 불과하다.

자녀들은 대체로 나이고하를 막론하고 부모의 再婚에 압도적인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래도 새로운 부모를 만나야 한다는 어색함, 부양문제, 주위시선과 상속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社會的 認識轉換이 시급한 형편이다. 저 출산 대책을 세우는 데만 골몰하여 자칫 고령화 사회에 대한 政策不在로 크나큰 사회적 대가를 치루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老年의 性 問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生老病死를 겪는 老化의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老人의 性에 대한 자연스러운 欲求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7) 老人의 自殺

現代는 醫術의 발달과 충분한 영양공급 등으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늘어났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65세라고 하면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조기 은퇴는 있어도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르는데다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 등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노인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제 근로를 늘리고 고령자를 위한 노동시장을 확대하는 등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조기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인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낮은 퇴직 연령을 높이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외롭고 병든 노인들을 위한 ‘노인상담소’와 ‘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해 ‘노인자살예방센터’등의 설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별다른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 노인들이 막다른 선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노인들의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먼저 經濟的 理由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가 양극화 하면서 빈곤층 노인들은 기본적 생계유지조차 힘든 게 현실이다. 서울시가 2008년 65세 이상 노인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4.1%가 소득이 없고, 29.4%는 월 5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 또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와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가 갤럽코리아와 함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은 23.2%가 노후에도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18%는 건강문제로 인한 질병비용 문제를 걱정했다.

社會的 原因도 빼놓을 수 없다.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弱化와 이에 따른 외로움과 生活苦, 老衰가 가져오는 어쩔 수 없는 각종 疾病,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노후 등은 노인들을 자살로 모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노인의 자살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 사회가 노인 자살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다.

<표 2-4> 2008 년도 노인자살 현황

자살원인	질병비관	경제곤란	정서요인	가정불화	기타	계
건 수	1,495	1,366	532	427	209	4,029
비율(%)	37.1	33.9	13.2	10.6	5.2	100.0

자료 : 경찰대 [노인자살 실태분석 2009.5]

노인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1990년 14.3명에서 2009년 77명으로, 20년 사이 5.3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34세 자살 증가율 2.49배와 35~64세 증가율 3.41배보다 증가폭이 월등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서도 최고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0년 7%에서 지난해는 11%로(535만 명)상승했고, 2018년에는 1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1955~1963년 사이 출생한 베이비부머¹⁰⁾ 세대가 지난해부터 은퇴가 시작돼 이들이 10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진입하게 된다.

10) 베이비부머(baby boomers): 1955~63년생 720만 명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전쟁이나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은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6·25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올해 만 48~56세인 720만 명 정도가 해당한다.

2011년 만 48~56세인 베이비부머들은 720만 명에 이른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갈수록 高齡化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책을 조속히 세우지 않는 한 老人 自殺率도 함께 증가할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8) 老人의 犯罪

全世界는 빠른 속도로 高齡化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産業化, 近代化와 科學의 發展으로 인한 醫學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감에 따라 점차 고령화 사회를 지나 高齡社會로 진입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그 중 노인범죄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노인범죄 또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범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노인들의 욕구는 많아지고 다양해지지만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가 항상 충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노인들의 욕구가 公論化되어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老人들의 欲求는 다양해지는데 이런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욕구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는 곧 社會問題로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老人犯罪가 급증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60세 이상의 노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노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6년 전체

범죄의 1.5%에서 2005년에는 5.1%로 늘었다. 노인 범죄 가운데 살인범은 5.3배, 성폭력범은 4.7배, 방화범은 무려 7.4배로 각각 증가했다. 노인 범죄의 양상도 연쇄살인, 승레문 예와 같이 방화, 약물 중독 등 점차 흉포화하고 있다.

노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전담 조직 구축, 再犯率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남성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곤에 노출된 빈곤한 여성노인들일수록 법 태도가 부정적이어서 法이 差別的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도 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經濟的인 疎外로 인한 여성노인들의 貧困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老人福祉의 概念

老人福祉(The aged welfare)는 노인이 福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定義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¹¹⁾

11) 서병진(2008) p.162.

따라서 노인복지는 저 수혜 노인이나 사회부적응노인 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적인 사회복지활동을 老人福祉의 概念이라 하겠다.

一般的으로 老人福祉라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바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양로원이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도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서 타인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生의 意味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欲求를 충족시켜 주도록 해야 함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老人福祉의 基本思想으로 간주된다.

3. 老人福祉實踐의 現況

1) 老人住居福祉施設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노인복지주거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유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 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표 2-5>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명)

종류	시설	2008		2007		2006	
		시설수	입소 정원	시설수	입소 정원	시설수	입소 정원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347	17,342	398	16,579	36	16,074
	양로시설	306	11,520	384	13,014	351	12,509
	노인공동생활가정	21	177	-	-	-	-
	노인복지주택	20	5,645	14	3,565	15	3,56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008년 말 기준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47개로 양로시설이 306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이 21개소, 노인복지주택이 20개소로 총 17,342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2) 老人醫療福祉施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실비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유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4)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5)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008년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1,832개소로 노인요양시설이 1,32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422개소, 노인전문병원이 78개소이며 총 81,262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입소절차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읍면동에 입소신청→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심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을 결정하게 되며 일반대상자는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당사자 간의 계약→입소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그룹홈(group home)과 소규모요양시설, 재가기능센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표 2-6>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단위: (개, 명)**

종류	시설	2008		2007		2006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1,832	81,262	1,186	61,406	898	52,628
	노인요양 시설	1,332	66,715	1,114	51,310	815	40,589
	노인공동 생활가정	422	3,500	-	-	-	-
	노인전문 병원	78	11,047	72	10,096	83	12,03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복지시설 현황

3) 老人餘暇福祉施設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4)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008년 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3,919개소로 노인복지회관 228개, 경로당 57,930개, 노인교실 1,260개, 노인휴양소 4개이며, 112,064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자연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2-7>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명)

종류	시설	2008		2007		2006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63,919	112,064	60,788	150,548	59,117	119,498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59,422	-	57,777	-	56,789	-
	노인 복지관	228	-	211	-	183	-
	경로당	57,930	-	56,480	-	55,504	-
	노인교실	1,260	-	1,082	-	1,099	-
	노인 휴양소	4	-	4	-	3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복지시설 현황

4) 在家老人福祉施設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낮 동안 시설에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는 시설.

(3)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980년대 중반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재가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 및 은천노인 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시범으로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991년 가정간호사업, 1992년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 규정 및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과 시설규정 등을 보완하면서 발전되었으며 2008년 4월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이름을 통일하고 서비스의 종류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구분하였다.

<표 2-8> 노인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 명)

종류	시설	2008		2007		2006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소계	2,298	13,460	1,408	72,563	1,045	50,796
	방문요양 서비스	1,111	-	767	62,736	523	42,832
	주야간보호 서비스	621	10,627	504	8,109	409	6,557
	단기보호 서비스	217	2,833	137	1,718	113	1,407
	방문목욕 서비스	349	-	-	-	-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행과 더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구분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6년에 1,000여개에 불과하던 시설들이 2008년 2,298개로 증가하였다. 2008년 7월 이후 재가복지서비스가 시장경제에 따라 확대되면서 2009년 5월 기준 방문요양서비스시설 6,031개, 방문목욕서비스시설 4,271개, 방문간호서비스시설 688개, 주야간보호서비스시설 925개 단기서비스시설 1,020개로 총 12,935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전에 비하여 5.5배에 달하는 수이다.

제 2 절 佛敎社會福祉의 概念

1. 佛敎社會福祉의 概念¹²⁾

佛敎社會福祉는 그것을 불교적 측면에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人間의 解脫과 같은 聖스러움을 강조하는 불교와, 이러한 성스러움의 영역은 경험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탐구에서 유보하려는 사회과학의 상호대립적 관계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사회복지는 그것을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한 영역과 특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불교사회복지의 다양한 위치와 성격은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형성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상호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는 불교와 사회복지가 결합한 불교사회복지의

12) 서병진(2010) p.89; 권경임(2004) pp.32~36; 임해영(2005)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정체성을 規定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사회복지 正體性을 규정하는 어려움으로 因해 우리는 불교사회복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줄 수 있는 概念定義를 必要로 한다. 왜냐하면 概念이란 과학적 탐구의 기초 단위로서 자연 및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고 과학종사자간 합의된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사고의 기반이 되며 현상에 대한 분류와 一般化의 機能을 수행하며 이론형성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현상의 설명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사회복지 개념은 불교사회복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규정해줌으로써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불교사회복지는 불교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연구하는 실천·응용학문으로 불교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불교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역사, 개념과 주체 및 대상은 물론이고 그 사업이나 유형, 방법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변동이 있을 때마다 민간복지로서 불교사회복지가 실천해온 모든 활동에 대한 인과법칙을 알아내고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佛敎는 人間이 苦痛의 속박에서 解脫하는 데 목적을 두며 社會福祉는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인간은 生老病死의 한계와 그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고 착취와 억압, 불평등이나 疎外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사회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한다.

인간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다양한 제도와 이념, 과학적 기술들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도 계

속되고 있다. 人間이 어떻게 하면 生老病死의 個人的 苦痛과 社會的인 苦痛에서 解脫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意識에서 불교사회복지는 출발하는 것이다.

불교사회복지의 불교를 주제로 하는 복지활동으로 佛敎精神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사회적 실천인 반면, 일반사회복지의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의 대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불교와 사회복지의 관점과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복지와 불교사회복지도 차이가 있는데, 불교복지의 불교에 의한 복지사업·시책·제도의 이념이나 실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로 생각하는 것이 불교복지이다. 그러나 불교사회복지의 역사와 사회에서 규정되는 사회복지문제에 대응되는 민간사회복지사업으로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불교복지의 불교조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복지활동이며, 복지활동의 주체와 대상이 불교의 제도나 틀 속에 한정되는 반면에 불교사회복지의 대사회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주체는 불교이지만 대상은 불교의 제도나 틀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사회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는데, 개념적 차이에 따라 준거 틀의 설정이 달라진다.

불교사회복지와 일반사회복지의 관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일반사회복지의 범주 안에 불교사회복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불교사회복지의 正體性이나 特殊性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개념적으로는 ‘불교사회복지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불교사회복지의 범주 안에 일반사회복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는 불교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의 범주를 초월했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상적이고 가치적인 면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개념적으로 '불교복지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불교사회복지와 일반사회복지가 일정한 공통적인 면과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각기 고유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불교사회복지와 일반사회복지가 공통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면서 서로의 다른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보편적인 복지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

넷째, 불교사회복지와 일반사회복지가 공통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고유한 영역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인데, 불교를 현실사회와 격리된 초월적인 관점으로만 인식하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사회복지 學界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일본 연구자들의 佛敎社會福祉 概念은 다음과 같다.

① 장곡천량신(長谷川郎信)

불교사회복지 사업은 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쉽게 실현할 수 없는 정신적 구제와 인격 및 개성의 교정, 교육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도덕성의 함양, 종교성과 사회성의 훈련 등을 독자적 특색으로 삼는다. 대승보살도에 바탕을 둔 직업관을 갖기 때문에, 일반 사회사업가보다 뛰어난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② 삼영송신(三永松信 · 1965)

사회복지는 종교의 自己實現의 과정이다. 그러나 단순한 종교적 자선 사업, 포교수단의 수준을 넘어서서 公的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내적으로는 불교의 철저한 인간애와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투철한 私的인 사회사업으로 성숙해야 한다.

③ 중원창미(中垣昌美 · 1991)

불교사회복지는 불교적 심정으로 생활개선을 원조하고, 개인이나 가족의 자립을 촉진하는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불교사회복지의 실천주체는 구체적 교단이나 사찰 내지는 법인조직 혹은 비영리 단체일 것이다. 그리고 대상설정에 따라 그 주체적 계기와 목표과제가 정해지는데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장애를 목표과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평등하게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불교사회복지사업의 대상과 목표가 된다.

④ 장곡천광후(長谷川匡後 · 2000)

불교복지란 불교에 기초한 복지로서 불교에는 i) 불교의 사상과 이념과 신앙 ii) 불교의 사상과 이념과 신앙을 체현하고 있는 승속의 불교자, 사원, 불교의 단체·조직이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것의 2가지 의미가 있다. 또한 복지는 i) 추상적·이념적·규범적 차원에서의 목적 개념으로서 복지 ii) 구체적·실천적·현실적 차원에서의 실제개념(이 경우 사회복지로 부르는 것이 좋다)으로서 복지 2가지 의미가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해 定義되고 있는 佛敎社會福祉 概念이다.

① 신섭중(1992)

불교사회복지는 불교를 주체로 하여 전개되는 복지활동이자, 불교정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회적 실천이다.

② 이혜숙(1991; 1995)

불교사회복지의 독자적 의미와 사회복지일반의 공통적 의미가 만날 수 있는 接點에서 불교사회복지 활동을 정의하면, 불교사회복지사업은 불교정신을 체득하고 그것을 신조로 일관하는 주체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원이나 불교임을 표방하는 사회사업가에 의해 行해지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합목적적 차원에서 불교사회복지는 궁극적인 목적개념으로서 복지이념을 지칭함과 동시에 실천개념으로서 복지사업적인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잠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③ 권경임(1999; 2000; 2001; 2003; 2004)

여기서 불교사회복지 개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주체적 계기를 불교의 가치규범이나 원리, 사상에 의한 이론으로 정립해 나가면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보편성과 독자성을 추구해 나가려는 시도이다. 둘째, 불교사회복지사업이란 역사와 사회에서 규정되는 사회복지문제에 대응되는 민간사회복지사업으로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獨自性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불교사회복지는 대사회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주체는 불교이지만 대상은 불교의 제도나 틀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사회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규정한다. 넷째, 사회복지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불교사회복지 개념은 불

교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연구하는 실천·응용학문으로 불교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며, 특히 불교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역사 그리고 개념과 주체 및 대상은 물론 그 사업이나 유형 또는 방법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역사적·사회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민간복지로서 불교사회복지가 실천해 온 모든 활동에 대한 인과법칙을 알아내고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개념적 핵심 특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불교사회복지 개념을 재구성 해보면 “불교사회복지는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복지이념으로 하는 사회조직인 불교 조직과 불자 개개인이 사회구성원의 행복추구와 궁극적 자기실현을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민간 사회복지 활동이다.”라고 概念定義할 수 있다.

2. 佛敎社會福祉의 思想

佛敎社會福祉의 理念은 生命尊重思想, 平等思想, 慈悲思想, 布施思想 大乘菩薩思想, 報恩思想, 福田思想, 緣起思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生命尊重思想¹³⁾

붓다는 처음 탄생과 더불어 ‘天上天下唯我獨尊’이란 말을 했다고 한다. 붓다는 태어나자마자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尊貴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외침은 자칫

13) 서병진(2010)불교사회복지론과 권경임(2004)의 불교사회복지실천론의 내용을 참조함.

붓다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 말이 붓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만물만상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우주만물이 모두 尊貴하다고 외친 것이다.

佛敎에서는 모든 生命을 가엾게 여기며 慈悲의 마음은 이러한 생명을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로 나타내고 있다. 당연히 계율의 첫째는 不殺生이다. 불살생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새나 짐승 그리고 벌레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존중사상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여 불살생의 계율이 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생명을 해방시키는 적극적인 放生思想으로 발전한 것이다.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불교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지도이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放生思想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生命尊重思想이라고 하겠다.

또한 불교에서는 萬物一如라 하여 일체의 모든 만물은 佛性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자신과 만물을 하나로 일치되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과 인간들을 둘러싼 환경의 보호를 통해 인류의 복지를 이루는 기본정신이 된다.

2) 平等思想

平等思想이란 差別이 없이 한결같음을 일컫는 말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民本主義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며 衆生들을 差別 없이 成佛하게 하는 萬法의 根本이 되는 原理를 말한다. 이 理念은 不二, 즉 모든 存在는 不二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本質적으로 평등하다는 佛敎의 平等觀이기도 하다.

붓다 生存 時의 印度社會는 ‘카스트’라는 差別的인 四姓階級制가 있었는데

붓다는 이러한 不合理한 選民的인 階級制度를 否定하고 人間平等을 主張하였다. 당시의 엄격한 身分制下에서 이러한 붓다의 주장은 가히 목숨을 담보로 한 革命的인 思想이라 하겠다.

一切 衆生은 本來 佛性을 가지고 있어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열반경』에서 一切衆生 悉有佛性을 설하고 있는데, 一切의 諸法은 다만 妄念에 의해서 差別이 있게 되므로 망념을 버리면 一切의 境界相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 一切法은 모든 相을 떠나므로 반드시 平等하다고 『대승기신론』에서 說하고 있다.

人間을 수많은 生命 가운데 하나로 보고 一切의 모든 生命을 濟度한다는 이상은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平等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붓다의 평등 사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만물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인류문제와 계급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평등과 질서에 대한 이념을 제시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이정표가 되는 思想이라 할 것이다.

3) 慈悲思想

慈悲는 佛敎의 基本思想이다. 大慈라함은 일체중생에게 기쁨(樂)을 주는 것이고, 大悲라함은 一切衆生의 苦痛을 없애주는 것이라 하였다. 자비는 大乘의 根本이요 그 자체가 如來요 佛의 본체이며, 無上의 福田이며 菩薩의 基本 功德이고 般若의 어머니이며 모든 부처의 祖母가 되는 것이라 본다.

불교의 복지를 실천하는 근간으로서 자비사상은 종교적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 「大智度論」¹⁴⁾에 “大慈라함은 일체중생에게 樂을 주는 것이고 大悲는 일체중생에게서 苦를 없애주는 것이다”라고 定義하였으며 또한 “慈悲是佛道之根本”이라고 明示되어 있다.

14) 「大智度論」(大正藏 25, p.208下)

「觀無量壽經」에도 “佛心이란 다름 아닌 大慈悲이니라”라고 하여 “大慈로 喜樂의 인연을 중생에게 주고, 大悲로 離苦의 인연을 중생에게 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자비정신은 괴로움을 없애주는 拔苦와 즐거움을 주는 與樂, 즉 拔苦與樂의 德으로 표현되어 지며 이것은 매우 넓고 큰 利他的 精神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비에는 3種이 있는데 龍樹는 「大智度論」에서 衆生緣·法緣·無緣을 들고 있다.¹⁵⁾

衆生緣慈悲는 모든 중생을 부모·형제·자매·친자식처럼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며 모든 중생을 平等하게 대하여 항상 좋은 일만 구하며 또한 무사함과 편안함을 주는 보통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다. 法緣慈悲는 세속적인 모든 煩惱를 이미 끊은 聖人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뇌를 끊지 못한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을 말한다. 無緣慈悲는 중생연이나 법연의 分別조차 하지 않으며, 緣에 연연해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은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一切의 分別을 떠나 인간의 愛憎을 초월한 순수한 중생에 대한 사랑이며 동시에 연민의 情이라 할 수 있다.

자비정신은 「佛地經論」¹⁶⁾과 「大般涅槃經」¹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생연의 자비는 범부가 짓는 자비로 小悲라 하고, 법연의 자비는 성문과 연각 및 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가엾이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려는 자비로 中悲라 하며, 무연의 자비는 諸佛의 자비로 大悲라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慈悲는 佛教의 福祉思想과 가장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四無量心은 자비의 실천으로서 중생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네 가지의 한량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慈無量心·悲無量心·喜無量

15) 「大智度論」(大正藏 25, p.350中)

16) 「佛地經論」(大正藏26, p.314中)

17) 「大般涅槃經」(大正藏12, p.452下)

心·捨無量心이 있다.

慈無量心은 사랑을 헤아림 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無瞋, 곧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성내는 일이 없이 사랑스런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을 뜻한다. 처음에는 자기가 받은 즐거움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하기로 뜻을 두고, 먼저 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널리 일체 중생에게까지 즐거움을 미치게 한다. 이것은 헤아림 없이 베푸는 平等精神이며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도 성냄이 없이 사랑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우애의 마음을 無量케 한다.

悲無量心은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무량심과 같이 無瞋, 곧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내지 않고 오히려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함께 하며 나누는 마음을 무량하게 일으킨다.

喜無量心은 喜受, 곧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 역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중생이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하여 환희심을 무량하게 일으킨다.

捨無量心은 無貪, 곧 탐냄이 없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을 뜻한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아 차별하지 않고 베풀면서도 베풀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버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별 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집착을 버리도록 하는 마음을 무량하게 일으킨다.

이와 같이 四無量心은 同體大悲精神으로 곧 慈悲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상의 분류는 형식상의 분류에 그치며 불교의 대자대비 정신은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이것은 불교의

18) 송준영(1996) p.34.

根本精神이라 할 수 있다. 大乘佛敎에 있어서 이러한 慈悲精神은 매우 중요시되었고, 그 修行者이며 社會的 實踐者인 菩薩은 생명을 지닌 모든 중생을 구제함을 원력으로 하는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여기에서의 중생의 개념은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일체의 생명 모두를 포함하므로 이것은 佛敎의 獨自的 社會福祉思想이라 할 수 있다.

4) 布施思想

布施의 布는, 베풀 布이며, 施 역시 베풀 施이다. 베풀다는 두 글자를 합한 것은, 보시의 참뜻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베풀고 또 베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보시란,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베푸는 내용이 되는 물건도 모든 것이 원래가 본질적으로 空 한 것이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집착함이 없어야 된다는, 三輪體空 三輪淸淨이라야 한다고 說하기 때문이다. 慧遠의 大乘義章에서는 “布라 함은 자기의 財를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며, 施라 함은 욕심을 거두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라고 했다. 곧, 보시란 자비심의 구체화된 것으로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의복이나 음식 등 재물 뿐만이 아니라, 친절히 대하는 것까지를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 법은 첫째, 시(施)할 때에 德이 있는 자와 덕이 없는 자를 가리지 말라. 둘째, 시(施)할 때에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말라, 셋째, 시(施)할 때에 種姓을 가리지 말라. 넷째, 시(施)할 때에 구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다섯째, 시(施)할 때에 매도하거나 악담하지 말라. 보시란 이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고자 하는 물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시정신은 남을

평안히 즐겁게 해주는 자비심에서 우리나라와야 하는 것이 보시의 정신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布施의 개념을 빈틈없이 엄격하게 규정지어서 보시를 행할 때나 행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베풀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시후의 받을 혜택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시의 정신과 방법, 마음가짐, 보시 후 혜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布施라 함은 慈悲心에서 나오는 행위로서 널리 남에게 베푸는 것이며 보시는 菩薩行 중에서 가장 중요한 實踐行이다. 六波羅密 즉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 中 그 첫째가 보시이다. 布施行은 보살이 成佛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보시의 목적은 「優婆塞戒經」 권5에 “智人이 보시를 행하는 것은 憐愍때문이며, 다른 사람에게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른 사람이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며, 모든 번뇌를 끊도록 하기 위함이며, 열반에 들어 有漏를 단절하고자 함이니라”고 하였다.

布施는 한국사회에 깊이 정착된 佛教倫理이긴 하지만, 재가인의 主體的 能動性을 소외시킨 결과를 빚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僧伽 中心의 功德說로 흘러, 삼보에의 공양이 곧 보시요, 그것은 공덕을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福田·祈福信仰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이다. 오늘날 불교가 사회복지사업 면에서 기독교에 크게 뒤지고 있음은 布施가 그렇게 그 본래의 정신을 상실한 데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5) 大乘菩薩思想

佛滅후 초기불교는 분열하여 20여개의 부파불교가 되고 점차 복잡한 이론의 전개와 민중과 멀어짐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해 갔다. 이에 스스로 반성하여 佛陀의 根本思想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났다. 소승불교는 출가본위로 계율상의 형식주의가 발달하여 自己解脫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기주의임에 반해, 대승불교는 在家本位로 자유주의와 一切衆生을 救濟하겠다는 利他主義로 완전히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대승보살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¹⁹⁾大乘佛敎가 社會的으로 興起하고 發展할 수 있었던 理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乘佛敎는 그 가르침이 ‘自利利他’의 교리이다. 일반적으로 小乘이라고 불리는 部派佛敎는 교리의 주된 방향이 自己의 修行에 있었던 것에 비해 대승불교는 타인을 위한 활동이 바로 自利를 위한 修行의 完成이 된다는 교리를 위주로 하고 있다. 즉 自利와 利他를 겸비하고 있어서 大乘이라 불리어 진다.

둘째, 大乘佛敎는 在家와 出家를 구별하지 않는 불교이다. 부파불교는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解脫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되어 在家신도는 해탈로부터 배제되어 버리는 반면, 대승에서는 재가자의 수행이 주가 되어 그러한 모든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대승의 입장이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수행인 六波羅密²⁰⁾은 釋迦菩薩이 在家者로서 실행했던 수행이다.

셋째, 대승은 行과 함께 信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難行道와 易行

19) 김만권(1975) p.92.

20) 「육바라밀」이라함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自利와 利他의 行을 구하는 구체적 인 실천방법으로서 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知慧등을 의미한다.

道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대승에서는 엄격한 수행이 있지만 동시에 쉬운 길도 있어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악에 굴복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넷째, 대승불교에서는 佛身論이 발달하여 救濟者로서의 佛陀가 요청되었기 때문에 그 구체력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또 어떻게 구체하는지의 문제가 중시되었다. 후에 불타의 본질과 위력의 근거를 고찰하여 法身·報身·應身(혹은 化身) 등의 佛身論을 說하기에 이른다.

다섯째, 대승에서는 모든 사람이 菩薩이 될 수 있다고 說한다. 成佛이 보장되지 않는 梵天이라도 보리심²¹⁾을 일으킴으로서 “나는 보살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불타에 대한 지극한 신앙으로서 자신도 석가보살²²⁾의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결심을 일으키게 되어 成佛의 불교가 성립하였다. 여기에서 “菩提心を 發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의 修行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성불하고자 하는 願力을 일으켰더라도 수행을 열심히 실행할 수 없는 의지가 弱한 사람은 佛陀의 구체를 통해서 성불을 달성코자 한다. 여기에서 양자의 수행방법은 다르지만 成佛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菩薩이라는 概念은 대승불교의 가장 重要的 中心 教義임은 明白하다. 보살이란 菩提薩陀(Bodhisattva)의 준말로써 菩提(Bodhi)는 깨달음의 뜻이지만, 薩陀(Sattva)는 本質·實體·마음·胎兒·勇士·有情등의 意味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을 ‘깨달음의 存在’라기 보다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보리를 얻고자 하는 단계의 有情이라는 뜻이 더 強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21) 「보리심」이라함은 불과에 이르러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하는 마음을 말한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이라고 하며 無上正等正覺이라 번역한다.

22) 「석가보살」은 석존의 전생 修行譚을 표현할 때나 또는 구도자를 가리킨다.

석가세존은 그 생애의 여러 分岐에 따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비바사론」에서도 “菩薩이라 이름 함은菩提를 求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버리지 않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살이란 부처가 되는 것을 志向하며 不斷한 修行을 하는 사람들로써, 窮極에는 佛陀의 智慧에 이르러 苦痛 받는 衆生을 救濟함을 目標로 한다.

「大智度論」에서는²³⁾ 보살과 마하살에 대하여 說하길, 無上智慧를 求하기 위하여 큰마음을 내는 것을 일컫는데 菩提薩陀라고 한다. 큰 용맹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中생 中에서는 우두머리가 되며 대자대비를 일으켜 대승을 성취시키고 中생들로 하여금 無上道를 行하게 한다. 大道를 行하여 가장 큰 경지를 얻고 대인의 상을 성취하기 때문에 摩訶薩이라고도 한다.

「유마경」에서도²⁴⁾ 지혜와 방편을 갖춘 사람, 모든 공덕을 갖춘 사람, 大悲心으로 中생을 위하여 존재하고 행동하는 사람, 불가사의한 해탈의 힘을 가진 사람을 菩薩이라고 한다.

「법화경」에서는²⁵⁾ 성불의 예언을 받은 사람,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람, 여래의 사도로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說하는 사람을 모두 보살이라고 한다.

「화엄경」은²⁶⁾ 보리의 지혜가 생겨나고 대승에 안주하며 般若波羅密을 母로 하고 方便善巧를 父로 하는 사람을 菩薩이라 한다. 또한 「무량수경」은²⁷⁾아미타부처님의 威神力을 믿고 空의 이치를 깨달으며 菩薩道를 行하여 불국토를 건설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법장보살은 모든 中생이 성불하지 않는 한 絶대로 成佛하지 않겠다는 四十八大願을 세우고 行을 닦아 阿彌陀佛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中생은 아미타불에게

23) 「大智度論」(大正藏25, p.94上)

24) 「維摩詰所說經」(大正藏14, p.549下)

25) 「妙法蓮華經」(大正藏9, p.30下)

26) 「大方廣佛華嚴經」(大正藏10, p.438中)

27) 「佛說無量壽經」(大正藏12, p.267中)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菩薩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求道の 보살·이미 깨달음을 얻은 悟道の 보살·중생을 깨닫게 하고 구원하려는 願을 세워 노력하는 利他誓願의 보살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량수경」 등 정토경전에서는 대승불교 이전에 오래도록 전승되어 오던 業生の 보살이 자유의지에 의한 願生の 대승보살로 변화하는데 이것은 大乘佛敎로의 전환점으로 정토경전의 菩薩道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²⁸⁾

菩薩思想은 대승교의에서 가장 핵심적 가르침으로서 大乘의 哲學을 대변하는 교의이다. 이 사상은 般若·華嚴·法華·如來藏·中觀·唯識 등의 모든 대승불교를 관통하며 또한 여기에서 菩薩은 大乘佛敎의 倫理的 實踐者이며, 理念的 具現者이기 때문에 대승을 이해하는 가장 요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의 이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佛性의 존재이다. 보살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즉 보살은 불타가 되기 위해 慈悲心과 利他行으로 끊임없이 修行精進하는 사람이므로 불타가 자기와 동질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으므로 自性淸淨心·如來藏·悉有佛性 등의 교리로 발전하여 왔다.

「遊日摩尼寶經」에는

“광야나 산에는 연꽃이 피어나지 않고 더러운 진흙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열반 속에는 보살이 생기지 않으며 오히려 애욕 속에서 보살은 생긴다.”

라고 말한다. 유명한 진흙 속의 연꽃에 대한 비유지만, 번뇌의 티끌 속에

28) 권경업(1998) p.55.

벌써 보살을 보살답게 하는 것이 상존 한다는 주장이다.²⁹⁾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상이다.

둘째로, 自利利他이다. 이것은 同體大悲의 理念을 갖는 일이며, 만약 중생이 불성의 존재라면 보살은 그들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自他平等이라는 理想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려 했던 것이 또 다른 보살의 理想이다. 대승불교가 보살만 제도할 수 있고 보살 이외의 사람은 구제할 수 없다면 진실한 대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 대승적 포용력은 정점에 달하며 그 具現者는 다름 아닌 菩薩이다. 大乘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衆生의 濟度이며 다른 이의 苦痛을 救하는 일이야말로 나의 解脫이라는 願力을 갖는다.

佛敎思想의 根本은 智慧와 慈悲라 할 수 있다. 지혜가 대내적으로 自利的인 것이라면 자비는 대외적으로 利他的인 것이며, 불교를 自利利他的의 宗教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求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濟度한다는 願力아래 修行 精進하는 求道者인 것이다. 이와 같이 지혜와 자비, 즉 自利와 利他是 不二인 것이므로 菩薩의 行에 있어서 自利없는 利他가 없고, 利他없는 自利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起信論」에서는 일체중생을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同體大悲라하였고, 「禪家龜鑑」에서는 동체대비야 말로 참다운 布施로 보고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分別差別이 있는 곳에는 同體가 될 수 없다고 보며, 자타와 주객이 不二인 경우에만 동체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이념이 진정한 보살의 의미로 規定지어 진다.³⁰⁾

셋째로, 깨달음과 願行의 삶이다. 菩薩思想의 核心은 깨달음의 추구하고

29) 정병조(1987) p.55.

30) 강남석(2000) p.12.

本願力の 實踐이라 할 수 있으며, 깨닫는다는 것은 물론 佛道를 이룬다는 것과 내 안에 있는 佛性を 自覺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信行은 菩薩行의 實踐이며 菩提心은 그 理念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보통 보살의 구체적인 實踐行으로 四攝法을 말하고 있는데 이 四攝法은 布施·愛語·利行·同事의 네 가지로, 보시는 주로 재물 등 물질적으로 베풀어주는 행위이며, 애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다독거리 편안하게 해주는 행위이며, 이행은 상대방의 이로움을 위해 헌신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동사는 동고동락하면서 苦樂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보살의 마음은 중생을 利益 되게 하는 마음이며 일체의 모든 法을 圓融하게 섭수하는 근본이다. 동시에 보살이란 존재의 핵심은 바로 보리심의 흥기와 신행의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大乘菩薩은 스스로 원해서 惡道에 가며 스스로 고통의 세계에 뛰어들어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자신의 안위는 일체 생각하지 않는다.³¹⁾

따라서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은 본질적 특성인 願과 行으로서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을 本願力으로서 구제하며, 그 원과 행은 개개의 보살마다 각각의 서원에 따라 다르지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으며 또한 자비를 근거로 보살의 서원에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보살의 결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願력이며, 自利利他를 위하여 모든 보살이 일으킨 願이 후세에 구체화된 것이 바로 四弘誓願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살의 總願이라 할 수 있으며, 願력이 달성될 때까지 미혹의 세계에 남아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大乘佛敎의 菩薩精神은 佛敎의 福祉思想이며, 또한 보살의 實踐行으로서의 本願力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1) 「大乘集菩薩學論」 권2, 集布施學品제1- 2, (大正藏권32, P .79中)

6) 報恩思想

報恩이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즉, 은혜를 느껴서 갚는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윤리로는 윗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에 보답한다는 뜻이지만 불교에서 의미하는 보은이란 은혜에 대한 대가로서 보답하는 것이 아니다. 《大乘本生心地觀經》에 四報恩으로 보은의 種類를 구체적으로 說하고 있다.

“세간과 출세간의 은혜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모의 은혜요, 둘째는 중생의 은혜요, 셋째는 나라의 왕의 은혜요, 넷째는 3보(寶)의 은혜다. 이러한 네가지 은혜는 일체의 중생들이 평등하게 짊어진 것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 제2권. <보은품>

첫째, 父母恩은 부모가 없이는 현재의 자신이 신체적으로 없음은 물론이고, 양육과 교육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은혜 또한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둘째, 衆生恩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은혜를 자각하는 것으로써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부조와 다양한 자원의 수혜에 대한 은혜도 포함된다.

셋째, 國王恩은 국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정치경제를 비롯한 교육 외에 사회 기초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보장을 받는 은혜를 자각하는 것이다.

넷째, 三寶恩은 佛·法·僧 三寶의 恩惠를 말하는데 인간이 먹고살기만 해서는 존재의 가치가 없으므로, 남과 더불어 살면서 서로 돕고 베풀면서 자기의 人格向上과 精神的 求道の 完成을 위해 불·법·승 삼보의 은혜

를 입는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人格修行을 통해 삼보의 은혜를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

보은사상은 복전사상에서 발전한 것으로 은혜를 입은 대상에게 福行을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은 복을 받으며 복행을 받은 대상은 보은의 뜻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善業을 行하는 實踐原理인 것이다. 즉, 相依相關性 原則에 의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시 그를 발생시킨 원인을 포함한 다른 존재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은의 原因이 되고 緣이 되어 다른 존재에 관계하는 순환인 것이다.³²⁾

이와 같이 불타의 근본사상에 나타난 복지사상은 완벽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군더더기 하나 없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불교의 보은사상은 相依相關의 關聯性을 중시하는 불교적 연대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심지관경」에서 說한 四恩 中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衆生恩이다. 이것은 일체중생의 恩이고 사회 전체의 恩이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은혜를 입기 마련이며 이러한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보은이고 이것이 불교사회 복지라 할 수 있다.

7) 福田思想

福田이란 범어로 ‘punya-kṣetra’로 福德을 생산하는 밭, 幸福을 키우는 밭, 사람들이 功德을 심는 場所 等の 意味를 갖는다. 이 말은 밭다를 복전 또는 우승복전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한 알의 종자를 심으면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는 것과 같이 보시는 종자요 받은 부처이어서 부

32) 서병진(2010) p.106.

처를 행복의 밭 즉, 복전이라고 한 것이다. 佛·法·僧 三寶와 부모와 고통 받는 이들을 공경하고 보살피고 베풀면 복덕과 공덕을 얻기 때문에 이를 밭에 비유하여 福田이라 부르게 되었다.

《華嚴經深玄記》에는 “生我福故名福田 즉, 나에게 복을 생하게 하는 고로 복전이라 한다.”고 했다. 이 뜻은 농부가 땅콩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래밭에 뿌려야 하고, 고구마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흙 밭에 뿌려야 하듯이, 아무 밭에나 아무 씨앗을 뿌려서는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이치로 福을 거두려면 ‘불타의 밭’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天台智者大師別傳》에는 二福田을 悲田과 經田으로 나누고 있다. “悲田 즉,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慈愛의 마음을 베풀면 良田이 된다. 經田 즉, 佛·法·僧 三寶에 공경심을 갖고 공양하면 良田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佛教社會福祉 思想의 根本理念을 확인할 수 있다. 佛다는 經田도 중요하지만 그 뜻은 悲田 즉, 고통받는 衆生救濟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三寶에 대한 恭敬보다 가난하고 苦痛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에게까지도 布施하는 것이 最上の 功德이라고 하였다. 불교사회 복지사상의 근본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悲田의 사상이다. 이와 같이 福田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아울러 苦痛받는 衆生이 한명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離苦得樂의 福祉思想인 것이다.

이러한 복전사상은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공 복지정책의 형태로 시설복전사업으로 발전되었는데, 고대인도 Aśoka 王은 佛타의 시물복전 사상을 최초로 응용하여 모든 생명체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 실천에 힘쓴 군주였다. 복전사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와 구제사업을 시행한 아쇼카 왕으로부터 龍樹의 《寶行王正論》에서 王에게

說한 《政道論》에 이르기까지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福田事業을 국가적 차원에서 公共福祉政策으로 시행한 것이라 하겠다.³³⁾

8) 緣起思想

佛陀가 깨달은 眞理 中 緣起法은 우리가 살고 있는 現象界의 모든 것은 마음의 作用에 의해서 緣起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질적 존재이건 정신적 존재이건 모든 존재는 實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造作에 의해 구성된 虛構임을 깨닫고, 이러한 존재가 허구적으로 구성되는 원인과 그 과정을 밝힌 것이 연기법이다.

緣起는 현상세계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의 생성과 발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기법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혼자서 생긴다든지 또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즉 모든 존재들은 원인들과 그 원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³⁴⁾ 이와 같은 연기법에 대해 「잡아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緣起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은 如來가 세상에 나왔거나 나오지 않았거나 항상 法界에 있는 것이다. 여래는 이 법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사람들을 위해 분별 연설한다.”³⁵⁾ 라고 하였으며, “석가모니불뿐만 아니라 비바시불 등 과거 七佛도 모두가 연기법을 증득하여 正覺을 이루었다.”³⁶⁾라고 하여 연기법이 새로이 나타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이미 存在해 있는 것을 佛陀께서 證得하거

33) 서병진(2010) p.108.

34) 윤호진(1992) p.81.

35) 「雜阿含經」 권12, (大正藏 2, p.85中)

36) 「雜阿含經」 권12, (大正藏 2, p.101上- 中)

나 깨달아 正覺을 이루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빈 땅에 서려고 할 때에는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되는 것과 같나니,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버려도 하나 또한 서지 못하여 서로서로 의지하여 서게 되는 것이다.”³⁷⁾라고 하여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모든 존재는 공간적 相依性和 시간적 相依性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은 공간적·시간적으로 하나도 獨立됨이 없이 서로가 因이 되고 서로가 緣이 되어 서로 依支한 채 因緣生起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生老病死를 비롯한 모든 고통과 번뇌 그리고 너와 나를 포함한 우주적인 모든 질서는 아무런 因果없이 獨自의 存在性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도우는 관계 속에서 생성·유지·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緣起的 秩序 속에서 볼 때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미혼모, 윤락여성의 문제는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가 바로 우리 모두와 직결되는 문제로 귀결되며 그것은 바로 나의 아픔과 괴로움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物質的·精神的 도움을 주려는 利他的 行爲가 나오게 되고 또한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覺他的 努力이 實踐될 수 있는 것이다.

緣起法的 次元에서 볼 때 人間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社會的 存在이다. 衆生을 救濟하고 社會福祉를 具現해 내는 利他行이나 慈悲의 精神도 이러한 인간의 홀로 존재할 수 없는 本質的이고 根源的인 認識에서 비롯되며 福祉의 必然性和 當爲性도 이러한 本質에 立脚해서 살펴볼 수 있다. 佛陀의 出家 動機는 人間이 직면한 現實의 苦를 解決하는 데 있었고 연기의 진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깨닫게 된 결과이다. 연기법에 대한 통찰은 人間의 苦惱를 解決하기 위한 原因分析의 結果로서 모든 고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緣起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

37) 「雜阿含經」 권12, (大正藏 2, p.81中)

면 고통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과 사회는 相互 有機的인 關係로 맺어 있어서 인간은 한 개체이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은 물론 사회가 연기적 존재의 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집과 소유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고통의 속박을 받는 존재가 된다.

佛敎의 緣起法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과 세상의 본질은 無我이고 無常한 것임을 현실의 통찰을 통해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연기법은 苦의 自覺을 통해 苦의 克復을 說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의 치료법에 비유하면 먼저 병의 진단으로 원인을 알아내고 적당한 치료법으로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苦를 해결하기 위하여 苦의 진상을 說하고, 苦의 원인을 규명하며, 또한 苦의 소멸상태를 밝히고, 苦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³⁸⁾ 한편 사회현상의 연기에 관해 살펴보면, 불교의 인과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인도사회를 지배한 社會哲學은 사회계급의 기원을 창조신에게 두는 汎神論的 自然法의 思想이었다. 그러나 연기의 원리를 증득한 불타는 불평등적인 사회현상의 기원을 범신론적 자연법사상에서 찾지 않았으며 연기법의 원리를 통하여 사회의 諸現象을 통찰하였다.

「起世因本經」³⁹⁾에는 연기법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데, 社會不平等의 기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탐욕을 들고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같이 不平等은 社會的 相互作用인 社會契約에 依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밖의 사회현상도 모두 연기의 원리에 의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經典에서 설명하는 사회현상의 因果關係를 살펴보면 지

38) 권경임(1998) p.62.

39) 「起世因本經」 권10, 最勝品下(大正藏 1, pp.416下- 418上)

배·피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四姓階級인 바라문·크샤트리아·바이샤·수드라 등의 사회제도는 사회적인 인과관계의 필연성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제도를 구성하는 계급이나 구조 상호간의 우열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四姓階級에 대한 定義는 「本生經」에서도 베다성전에 언급되어 있다고 말한 정의를 인용하는데,

“공부를 위해서 성직자 계급이, 명령을 위해서 귀족계급이, 농사를 위해 평민계급 지위를 부여했네.”

라고 하였다.⁴⁰⁾ 그러나 絕對神을 믿지 않는 邪命外道들은 佛陀 당시의 사회현상에 관해 결정론을 주장했다. 즉 인간은 여섯 가지 존재유형으로 도덕적 성취의 단계에 따라 숙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佛陀는 경험론적인 인과원리에 따라 논박하고 있는데, 인간은 절대신이나 운명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브라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母胎로부터 태어난다는 사실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어느 계급이건 출생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로서 사회적인 계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의 계급은 영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것이라고 본다.

40) 「本生經」 권5, (한글대장경, p.205)

“聖者 바라문은 베다, 사람의 왕은 領有, 벻사는 農耕, 숫다는 사람에게 奉仕하며 각각 자유로이 제 영역 그대로를 따랐나니 이것은 능력을 가진 이의 지은 것이라 사람들은 말한다.”

또한 社會的 階級이라는 것도 倫理的으로 기회가 균등하여 상층계급이라도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다음 순간 惡趣에 떨어질 수 있고, 하층계급이라도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하면 다음 순간 善趣에 태어날 수 있다는 사회변동의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자유의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佛陀는 사성계급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불교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개념에 입각해 階級說을 비판하였으며, 모든 계급이 본래 평등하다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중요시 하였고, 특히 도덕적으로 기회가 균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⁴¹⁾

한편 佛陀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면에서도 差別을 허용치 않았다. 생산수단에 따라 직업이 기능적으로 분화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계급간의 차별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생산수단은 노동이나 생산에서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직종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또한 어떤 생산수단을 사용하건 그것은 계급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계급의 독특한 유전형질이 있어서 그것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의 계급적 차별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규명한다.

따라서 사회현상은 개인의 유전형질 보다는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인 평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因果的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佛陀는 階級不平等論에 대한 反問을 통해 佛敎的 見地에서 도덕적 측면의 기회 균등이 絶對的 平等임을 강조하였는데, 불교의 僧伽共同體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⁴²⁾

여기에서 계급의 고유한 의무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가치인 계율과 법의 실천을 사회적 행위로서 보다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41) 전재성(1995) pp221~222.

42) 권경업(1998) p.65.

모든 계급의 사회적 의무가 본질적으로 그것의 도덕적·사회적 평가 속에 내포된다고 보았을 때, 그 사회적 행위와 평가에서 계급은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불교는 정신적·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모든 현상들이 바로 중생의 행위에 의해 인연되어 선택,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일체의 생성에 있어서 神意論이나 無因無緣의 偶然論이 아니라 중생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모든 현상은 작용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연기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緣起法에 의하면, 이 사회의 諸般現象의 原理는 인간 개개인의 사회적 행위들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 서로 因과 緣으로서 결합하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 개인과 자연 등 世界 内の 모든 존재는 상호 밀접하고도 불가분의 相互緣하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인간의 의지적 작용과 그 행위들에 의한 총체적 반응으로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에게 무단히 영향을 끼치면서 그 가운데 일으키는 業의 세력이 이 세계를 형성하고 이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사상은 이천여 년 동안 동양사회에서 공동체적인 連帶主義의 근원이 되어 왔으며, 서구사회에서도 근대이후 實存哲學, 生の 哲學, 哲學的 人間學 等の 思潮가 나타나 佛教의 相依相關的 存在論과 유사한 철학적 개념들을 표명하고 있다.

佛教의 緣起法은 사회구조를 분석하는 유용한 준거로서 매우 합리적인 이론이다. 연기법의 본질적인 핵심을 이해한다면 佛陀의 중생과 세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의 진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⁴³⁾ 여기에서 사회복지의 진정한 방향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본원적으로 사회성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렇게 조건 지어져 구성될

43) 이혜숙(1995) p.68.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내재하는 모든 문제들의 소재가 고찰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불교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자기규정의 성찰과 현실사회의 문제의 소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진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社會問題에 대한 佛敎的 根幹이 되는 것은, 사회성원들이 자기가 속하는 사회체계 내에서 구조적 특성인 연기 법칙을 모르거나 혹은 그 법칙에 순응하는 행동을 실천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점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본성이 연기 법칙하의 존재임을 안다면, 상호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상의상관적인 공동운명체로서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배타주의는 개인체계와 사회체계의 본성이며 규범이기도 한 緣起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모순되며 부조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 본성을 如實히 보게 되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개인과 사회는 상호대립적인 갈등관계를 지양하고 상호연대에 의한 현실을 인식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체계가 상의상관적인 共同運命體로서 현실에 보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체 중생을 대함에 있어 無我的 경지에서 同體大悲心을 비롯하여 四無量心을 갖고 ‘나와 남’ 구별 없이 四相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며 함께 조화롭게 잘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은 우리 불자들이 가득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3. 佛敎老人福祉의 經典的 根據⁴⁴⁾

佛敎는 老人을 生老病死의 한 과정에 있는 衆生으로 보고, 노인에게 공경과 공양을 다해 報恩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노인에게는 바르게 늙는 법과 밥그릇 숫자가 아닌 智慧의 나이를 생각하여 오욕의 향락을 추구하

44) 서병진(2010) pp.283~284; 연꽃마을(2009) pp.22~24내용을 요약정리함.

는 탐욕을 버리고 淸淨行을 實踐할 것을 강조하였다. 父母恩에 대해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을 막론하고 孝를 說하고 있으며, 생명을 주고 양육하여 주신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실천적 행위가 孝라고 가르치고 있다.

《대승본생심지관경》에 부모은·국가은·중생은·삼보은의 四報恩에 대해 說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의 열 가지 德을 설하여 父母恩을 강조하고 있다.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부모의 은혜가 크고 깊음을 설하여 감사하고 보답하도록 가르치는 경이다. 유교의 효경이 아버지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점과 달리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세하게 열 가지를 묘사하여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 ① 懷耽守護恩(뱃속에 있을 때 품고 지켜준 은혜) ② 臨產受苦恩(출산의 고통을 감내한 은혜) ③ 生子忘憂恩(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④ 咽苦吐甘恩(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여 주신 은혜) ⑤ 廻乾就濕恩(마른 자리와 젖은 자리를 가려 눕힌 은혜) ⑥ 乳哺養育恩(젖을 먹여 길러준 은혜) ⑦ 洗濯不淨恩(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길러준 은혜) ⑧ 遠行憶念恩(먼 길을 떠날 때 항상 걱정하는 은혜) ⑨ 爲造惡業恩(자식을 위해서는 악한 죄도 짓는 은혜) ⑩ 究竟憐愍恩(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우란분경》 역시 《부모은중경》과 함께 불교계에서 효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붓다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惡業의 과보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는 어머니를 구하고자 阿羅漢 聖者들에게 供養을 올리고

齋를 지내 어머니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생후의 孝까지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佛經은 부모의 孝에 대해 “孝의 功德은 붓다가 한 劫 동안 계속 說하여도 다할 수 없다”거나 “부모님께 孝道하는 功德이 붓다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孝의 重要性을 일깨우고 있다.

“모든 남자는 다 나의 아버지고 모든 여자는 다 나의 어머니이니, 내가 과거 생에 태어날 적마다 그들을 의지하여 태어 났느니라. 따라서 육도의 중생이 다 나의 부모이다. (…중략) 일체의 땅과 물이 다 나의 전신이고, 일체의 불과 바람이 다 나의 본체이다.”
《범망경》

“하늘은 자기 집에 있나니 하늘을 섬기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공양하라. 스승을 공양하고자 하면 부모님께 공양하라. 부모가 바로 스승이니라. 예배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모님께 예배하여야 하느니, 그러면 살아서 명예를 얻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 나니라.”
《잡아함경》

“무릇 사람이 천지의 귀신을 섬긴다 해도 그 부모에 효도하는 것만 못하다. 부모야 말로 모셔야 될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
《잡보장경》

“선남자여!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부자이고 어떤 것이 가장 가난 한 것이냐? 어머니가 계시는 것을 가장 부자라 하고, 어머니가 계시지 아니한 것을 가난하다고 하며, (…중략) 부모님께 효도로 봉양하라. 부처님께 봉양한 것과 그 복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십지관경》

“자식은 부모를 다섯 가지 일로 공경하고 따라야 하느니라. 첫째는 받들어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둘째는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께 알려야 하며, 셋째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부모의 바른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하고, 다섯째는 부모님을 정법으로 인도하여 생사의 괴로움에

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선생경》

佛敎는 어느 종교보다도 孝를 강조한다.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대부분의 경전에서 孝를 說하고 있다. 그러나 儒敎의 孝와 方法上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유교의 효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上下關係를 설정하여 無條件的으로 하여야 할 義務인데 反해 불교의 효는 나의 생명을 있게 하고 양육시킨 부모의 은혜[知恩]에 대한 감사와 報恩의 實踐的 行爲가 孝인 것이다. 은혜를 如實하게 알아 바로 깨달아[知恩], 그 은혜에 보답할[報恩]것을 강조하는 것이 孝道의 倫理다.

佛敎의 孝는 身分的인 上下의 倫理가 아니고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닌 양쪽이 平等하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關係를 맺고 있는 수평의 도덕이다.

이것이 불교의 一如平等과 一切衆生 悉有佛性의 思想에서 온 것으로써 가정윤리와 다르지 않다.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는 연기의 법칙 즉 相依相存關係에 따라 양쪽이 평등한 인간적인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實踐規範인 것이다.⁴⁵⁾

恩惠를 깨닫고 은혜를 갚는다는 불교의 효 사상이야말로 가족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사회, 인류, 중생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서 필경에는 人類共同體 實現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人間의 尊嚴性과 平等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佛敎의 孝 思想은 現代 産業社會가 추구하는 가정의 倫理概念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45) 불교에서는 부모·중생·국가·삼보의 四種大恩을 說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은혜를 잊고 背恩 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인간에게 있어 그 이상의 惡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4. 佛敎老人福祉의 理念과 必要性

1) 佛敎老人福祉의 理念

우리나라에서 가족부양의 기본이 되는 개념은 ‘孝’인데,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기여한 노인들의 여생을 책임지는 것은 자녀나 가족은 물론 국가·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효는 부모를 위한 봉사와 공경의 의미로 孝의 社會化를 통한 노인복지 정책의 제도적인 보장에 앞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孝思想의 再認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단법인 연꽃마을이 실시한 「孝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분석」에 의하면⁴⁶⁾ 孝에 대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7%였으며, 孝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공동으로 노력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응답이 75.9%로 나타났다. 또한 孝의 계승을 위한 핵심 주체는 가정(69.3%)이어야 한다고 하여 가정의 기능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효정신과 실천방법에 있어 傳統的인 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4.7%로 현대 사회에 맞는 孝의 再照明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과거 傳統的 孝의 概念에 입각한 가치관이 그대로 생활원리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고 현 시대에 맞는 孝의 概念이 生活原理로 도입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⁴⁷⁾ 따라서 현재 한국인들이 개념화하여 실천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기본적 효의 개념을 살펴보면 부모를 존경하는 것, 부모를 위해서 육체적 및 재정적으로 희생하는 것, 부모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

46) 사단법인 연꽃마을, 효인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분석(서울: 연꽃마을 출판부, 2003) 참조.

47) 김태현(1995) p.78.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이 화합하는 것, 부모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 노부모를 극진히 보호·부양하는 것, 부모를 위해서 어렵고도 비상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념의 구현을 통해 부모를 보호하고 부양하려는 것이다.⁴⁸⁾

現代社會에서 새로운 孝의 概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보살핌과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 양자 간의 관계가 점점 약화될 전망이어서 이러한 현상에서 오는 문제점은 사회복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老父母를 보호·부양하는 일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사회가 老人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회가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반영되는데, 이와 같이 효의 이념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치로 한국인의 생활 속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경로사상과 노인복지사상에 근간이 되어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효는 부모자녀간의 맥을 잇는 것으로 부모부양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효의 가치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傳統社會에서 孝는 報恩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유교에서 그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효의 강조는 유교적 통치이념에서 비롯된 가족이데올로기로 이것은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으며 국가는 가족이 그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정책이념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교적 統治理念의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다.⁴⁹⁾

48) 성규탁(1995) pp.43~44.

49) 박광준(2004) pp149~151.

이러한 맥락에서 효부상의 경우 수발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사회 관념을 재생산한다는 이유에서 거부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효는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어 왔는데, 불교의 효는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부모에게만 효도할 뿐 아니라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 하여 孝의 社會的 次元을 제시하고 있다.

佛敎에서 인간관계의 윤리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불설선생자경, 장아함경의 선생경, 중아함경의 선생경, 불설시가라윳육방예경 등에 보면, 불타께서 장자의 아들인 선생에게 육방에 대한 예배의 뜻을 說한 것으로, 그 가운데 동방은 친자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상호신뢰로써 자신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한 것으로 세속적인 도의생활, 사회적인 實踐規範을 敎示한 것이다.⁵⁰⁾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고 보살필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⁵¹⁾ 그러나 佛陀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의무와 복종관계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사랑과 믿음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관계로 相互交好的인 關係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수행으로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서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인간관계의 윤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明示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부양의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인 孝의 概念을 노인문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하고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효의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50) 불교의 노인복지사상 일고찰, 불교와 사회복지 창간호, (중앙승가대사회복지연구소, 1994)참조.

51) 장아함경 권11, 선생경 제12(『대정장』 1, p.71)

2) 佛敎老人福祉의 必要性

佛敎에서는 노인도 迷妄의 衆生 가운데 한 개체로 보고, 인간의 네 가지 고통인 生老病死의 한 과정에 있는 인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노인 문제에 대한 불교적 인식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생로병사의 문제 즉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인식에서 출발한다.⁵²⁾

불교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 報恩精神에 입각한 노인의 공경과 공양을 강조하고, 노인을 위하여 바르게 늙는 법과 더불어 밥그릇 숫자가 아닌 지혜의 나이를 생각하여 향락을 추구하는 탐욕을 버리고 淸淨한 實踐行을 하도록 說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불교가 인간적인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초기경전에는 佛陀의 노인구제사례가 나타나 있다. 외아들의 죽음으로 상심한 자와 기력을 상실한 바라문을 구제하고, 사위와 딸을 한꺼번에 잃고 실성한 장자를 구호하였는데 부모를 공양하고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나고 죽어서는 극락에 태어나며, 부모에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자식은 부모보다 더 좋은 의복을 입거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며, 부모보다 크게 말하지 말고 오직 공손하게 부모를 섬겨야 하고, 불효하면서 복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여 그 불효의 악행을 꾸짖고, 복을 받는 참된 행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최근 高齡社會 進入을 앞두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데 反해, 불교 신자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老人에 대한 복지가 미비한 것은 불교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2) 권경임(2004) p.189.

제 3 절 佛敎老人福祉 施設의 現況

1. 佛敎老人福祉 施設의 概念

社會福祉施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行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교단 및 교구, 그리고 사찰이 운영하는 불교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고자 노인들의 포괄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本 研究에서 佛敎老人福祉施設이라 함은 당연히 노인들을 위해 부처님의 중생구제의 원력과 자비라는 불교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가불자시설과 종단 또는 사찰, 스님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로 설정한다.⁵³⁾

2. 佛敎老人福祉 施設의 展開 過程

1) 老人福祉施設의 登場背景

노인복지시설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81년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 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뿐이었다. 이후 1989년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시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건설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53) 고경환(2011) p.9.

계를 인식하여 실비 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새롭게 노인복지시설에 포함되었다.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 시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 등을 국가나 비영리법인에 의해서만 설치·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 기업이나 개인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94년 노인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가목적 노인집합주택 서비스를 규정하는 등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치가 입법화되었다. 그리고 1997년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보호전문 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주거복지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단기보호시설뿐이다.

2) 老人福祉施設의 發達過程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기원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나이 많고 직위가 높은 문신들에게 토지와 노비 등을 주어 이들을 예우했던 기로소(耆老所)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양로시설로는 1921년 서울 동작동에 설치된 천주교양로원이 최초의 시설이며, 1927년 서울 청운동에 설치된 청운양로원이 두 번째다. 그 이후 해방될 때까지 경북 칠곡의 혜생양로원, 전북 김제의 애린양로원, 부산의 신망애양로원, 경기 의정부의 경기자혜원 등 모두 6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었다.

그 후 한국전쟁 시기에 전쟁고아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이 늘어날 때 양로시설도 함께 늘어나 1956년에는 전국의 양로원수가 37개소(입소인원 2,132명)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경제 성장, 산업화 도시화의 사회 변동기에도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1980년까지도 양로시설은 48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수도 3,158명으로 195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노인복지시설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따라 처음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때 노인복지시설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구분되고, 비용부담형태에 따라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되었다.

<표 2-9> 노인복지법 제정당시 시설분류

비용부담형태	건강한 노인	건강하지 않은 노인
무료	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비	실비양로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의 시행이후 1980년대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발달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다. 1983년에 요양시설이 처음 생겨나 그 해 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유료양로시설도 1988년에 최초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도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모든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1997년에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현재와 같이 체계화하게 되었다.⁵⁴⁾

3) 佛敎老人福祉施設의 環境的 特性

佛敎界는 노인복지시설의 건축형태로서 주거와 치료를 위한 복합적인 구조로 하여 장기 및 만성질환의 노인을 위하여 치료적인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하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노인의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기능저하에 따르는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적인 실내 인테리어와 건축설계가 필요하다.⁵⁴⁾

현재 曹溪宗을 비롯하여 여러 종단에서 불교의 대중화와 지역사회연대사업의 하나로 노인요양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불교계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세울 때 사찰은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을 살리고 자연친화적 환경의 장점을 살려서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일례로 은해사는 자연친화적인 생태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樹林葬을 건설할 계획인데, 수립장은 장례를 散骨로 치르는 새로운 형태의 장묘 방법으로 묘지와 납골로 인한 국토 잠식과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마곡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참선이나 명상수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나 명상수련 등을 실시하여 사찰 환경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54) 차홍봉(2004) p.3~30내용참고.

55) 권경업(2004) p.200.

3. 佛敎老人福祉 施設의 運營現況

1) 韓國 宗教界의 社會福祉施設 現況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불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정도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각 종단들은 사회복지시설 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써 종단이 운영하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비교·분석하지 못하고 일부 종단 또는 종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가톨릭의 경우 한국천주교회 통계(2009)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1,264개, 불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958개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2009.12.기준)가 기독교의 3종단(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감리회)에 대해 1,097개를, 원불교는 190개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종단별 수평비교는 어렵지만 불교계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⁶⁾

2) 佛敎界의 老人福祉施設 現況

불교계가 운영하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2009년 말 기준 모집단은 아래<표 2-10>와 같이 958개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이 76.5%(733개), 생활시설 23.3%(233개), 이용+생활시설이 0.2%(2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분포를 보면 노인복지시설(40.2%), 영유아시설(23.9%), 장애인복지시설(9.1%), 지역사회복지시설(7.0%)의 순으로 분

56) 고경환(2011) p.15.

석되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수의 추이를 보면, 1995년에 95개소, 1999년에 312개소, 2006년에 477개소, 그리고 2010년 958개소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1 참조>.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1990年代 末부터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종류별로 증가추이를 보면 노인, 아동,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시설이 두드러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의료, 상담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소년, 노숙인, 자원봉사 관련 시설의 경우 199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계의 사회복지법인은 전체 123개로 나타났다. 이를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조계종이 약 54% 재가자가 33%, 기타종단이 7.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2 참조>.

또한 시설유형별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40.0%), 영유아시설(20.6%), 지역사회복지시설(11.0%),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는 이용시설 73.8%, 생활시설 24.0%,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병합이 2.2%임을 보여주었다. 운영형태로는 위탁 약 60%, 직영 약 40%를 보여주었다. 또한 운영주체는 종단과 교구본사가 47%, 사찰과 스님이 46%, 그리고 재가불자 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2-13참조>. 또한 시설의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 28.5%, 경기도 14.2%, 그리고 경북 1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전국의 약 과반수(53.9%)에 가까운 것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지역에 집중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영유아시설은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부랑인및노숙인시설과 난치병요양원은 극히 제한된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4참조>.

<표2-10>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집단 현황(2009)단위:개소,%

	계	지역사회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	영유아	여성,가족 복지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정신 보건	기타
계	958	67	385	71	87	47	229	11	12	27	8	14
(구성비)	-100	-7	-402	-74	-91	-49	-239	-1.1	-1.3	-2.8	-0.8	-1.5
시설별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설종류												
생활시설	23.3	-	37.9	53.5	19.5	10.6	-	27.3	41.7	7.4	75	7.1
이용시설	76.5	100	61.6	46.5	80.5	89.4	100	72.7	58.3	92.6	25	92.9
이용+생활	0.2	-	0.5	-	-	-	-	-	-	-	-	-
운영형태												
직영	43.3	9	53.2	71.8	48.3	8.5	32.3	27.3	33.3	59.3	75	28.6
위탁	56.7	91	46.8	28.2	51.7	91.5	67.7	72.7	66.7	40.7	25	71.4
지역												
서울	26.3	20.9	17.1	21.1	18.4	31.9	45	50	66.7	22.2	-	21.4
부산	9.6	17.9	10.9	7	4.6	23.4	7	-	8.3	-	-	7.1
대구	5.7	6	7.8	4.2	1.1	6.4	3.5	8.3	-	14.8	-	7.1
인천	0.5	0.1	0.2	-	-	-	0.2	-	-	-	-	-
광주	2.3	4.5	1.3	1.4	3.4	-	1.7	8.3	-	11.1	14.3	7.1
대전	1.8	3	1.6	1.4	-	2.1	1.7	-	-	-	28.6	7.1
울산	3	3	4.4	1.4	5.7	-	0.4	8.3	-	3.7	-	7.1
경기	13.6	13.4	16.1	21.1	13.8	4.3	10	-	-	14.8	-	21.4
강원	6.9	6	6.2	14.1	13.8	2.1	4.8	-	16.7	7.4	-	-
충북	2	1.5	0.8	4.2	5.7	2.1	2.6	-	-	-	-	-
충남	3.1	1.5	3.4	-	-	8.5	4.4	16.7	-	-	-	-
전북	1.9	1.5	2.6	-	1.1	4.3	1.3	-	-	-	-	7.1
전남	4.5	3	7	2.8	2.3	-	2.6	-	8.3	7.4	14.3	-
경북	9.4	13.4	9.3	15.5	13.8	-	6.1	8.3	-	14.8	42.9	-
경남	8.3	3	9.8	5.6	10.3	14.9	7.4	-	-	3.7	-	14.3
제주	1.1	-	1.3	-	5.7	-	0.4	-	-	-	-	-

<표 2-11>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수의 변화추이

단위: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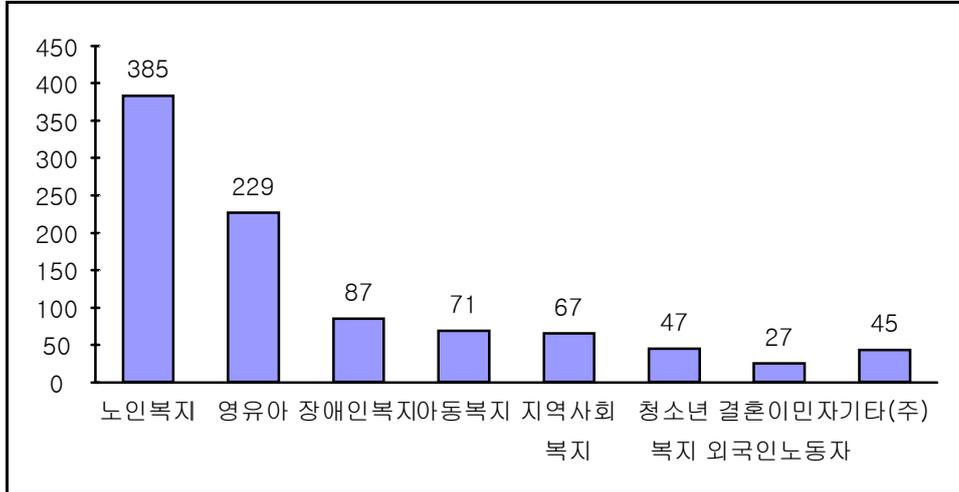
분야	1995		1999		2006	
계	95		312		389(88) ⁵⁷⁾	
(구성비)		100.0		100.0		100.0
지역사회	20	21.0	35	11.2	50(1)	10.7
노인	11	11.6	50	16.0	106(23)	27.0
아동 (영유아포함)	21	22.1	135	43.3	142(51)	40.4
장애인	9	9.5	13.	4.2	44(1)	9.4
청소년	15	15.8	31	9.9	28(3)	6.5
여성	-	-	1	0.3	3(0)	0.6
노숙인 부랑인	3	3.2	11	3.5	8(0)	1.7
의료	-	-	5	1.6	2(3)	1.1
상담	-	-	5	1.6	1(4)	1.1
자원봉사	-	-	3	1.0	1(1)	0.4
기타 ⁵⁸⁾						

57) () 안은 조사표 미회신 시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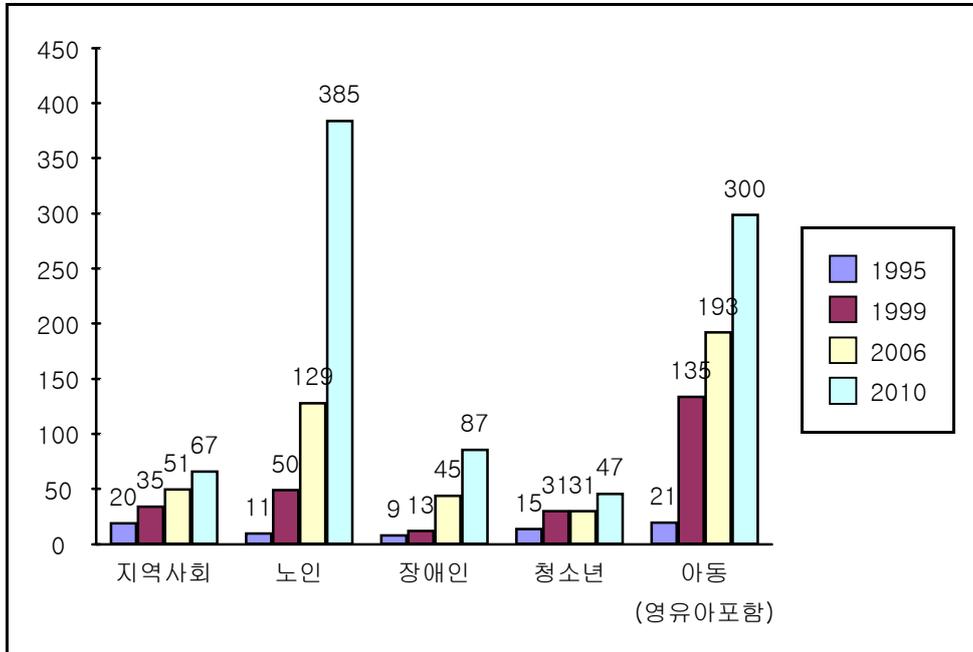
58) 장의복지, 사회체육분야 등 포함

자료: 임혜영, 2006. “불교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분석결과”, 『불교사회복지편람』, p1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그림 2-1]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집단 현황(2009)



[그림 2-2]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변화추이



<표2-12>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현황(2009)

	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기타 종단	재가자
계	123	66	4	1	1	1	9	41
(구성비)	(100.0)	(53.7)	(3.3)	(0.8)	(0.8)	(0.8)	(7.3)	(33.3)

<표 2-13> 응답시설의 시설유형별 운영 현황(2009) 단위: 개소, %

	계	지역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	영유아	여성· 가족 복지	부랑인 노숙인 복지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정신 보건	난치 병요 양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수	530	58	216	37	48	27	109	11	9	8	6	1
(구성비)	(100.0)	(11.0)	(40.8)	(7.0)	(9.1)	(5.1)	(20.6)	(2.1)	(1.7)	(1.5)	(1.1)	(0.1)
시설종류												
이용시설	73.8	100.0	57.9	51.4	75.0	88.9	100.0	45.5	55.6	100.0	33.3	-
생활시설	24.0	-	38.0	45.9	25.0	11.1	-	36.4	44.4	-	66.7	100.0
이용+생활 2)	2.2	-	4.1	2.7	-	-	-	18.1	-	-	-	-
운영형태												
직영	39.9	5.2	51.9	67.6	56.3	-	24.1	45.5	33.3	62.5	66.7	100.0
위탁	60.1	94.8	48.2	32.4	43.8	100.0	75.9	54.6	66.7	37.5	33.3	-
운영주체												
종단	38.3	41.4	33.8	40.5	45.8	44.4	45.0	18.2	44.4	12.5	16.7	-
교구본사	8.7	12.1	11.1	5.4	6.3	3.7	5.5	9.1	-	25.0	-	-
사찰	12.8	10.3	9.3	10.8	14.6	11.1	22.0	-	33.3	12.5	-	-
스님	33.6	36.2	40.3	24.3	14.6	40.7	24.8	54.6	11.1	37.5	83.3	100.0
재가불가	6.2	-	5.1	18.9	18.8	-	1.8	18.2	11.1	12.5	-	-
기타	0.4	-	0.5	-	-	-	0.9	-	-	-	-	-

주 1) 운영상태 문항의 무응답 1개 제외.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응답한 내용임.

<표 2-14> 조사응답시설의 시설유형별 지역 분포(2009)

	계	지역 사회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	영유아	여성, 가족 복지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정신 보건	난치 병 양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수	530	58	216	37	48	27	109	11	9	8	6	1
(구성비)	(100.0)	(11.0)	(40.8)	(7.0)	(9.1)	(5.1)	(20.6)	(2.1)	(1.7)	(1.5)	(1.1)	(0.1)
지역												
서울	28.5	24.1	20.8	24.3	22.9	44.4	46.8	27.3	66.7	-	-	-
부산	8.9	13.8	10.7	2.7	4.2	7.4	9.2	-	11.1	-	-	-
대구	5.3	3.5	6.0	8.1	-	7.4	5.5	18.2	-	-	-	-
인천	0.4	-	0.5	-	-	-	0.9	-	-	-	-	-
광주	1.9	3.5	1.4	-	4.2	-	0.9	-	-	12.5	16.7	-
대전	1.5	1.7	0.9	2.7	-	3.7	0.9	-	-	12.5	16.7	-
울산	2.3	3.5	3.2	-	2.1	-	-	18.2	-	-	-	-
경기	14.2	17.2	17.1	13.5	18.8	3.7	11.0	-	-	12.5	-	-
강원	7.9	5.2	6.9	21.6	12.5	-	6.4	-	22.2	12.5	-	-
충북	0.8	1.7	0.5	-	2.1	3.7	-	-	-	-	-	100.0
충남	2.6	1.7	2.3	-	-	7.4	3.7	18.2	-	-	-	-
전북	2.3	1.7	3.2	-	-	3.7	1.8	-	-	-	16.7	-
전남	4.9	3.5	8.3	5.4	4.2	-	1.8	-	-	-	-	-
경북	11.2	13.8	9.3	21.6	16.7	-	6.4	18.2	-	37.5	50.0	-
경남	6.6	5.2	7.4	-	10.4	18.5	4.6	-	-	12.5	-	-
제주	0.8	-	1.4	-	2.1	-	-	-	-	-	-	-

2010년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총 1,097개 중 설문에 응답한 958개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위 [그림 2-1]에서 노인복지사업 385개소(40.2%)로 전체 사업 중 첫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업유형을 보면 영유아복지시설이 229개소(23.9%), 그 다음이 장애인복지시설 87개소(9.1%)였으며, 그 외 지역사회복지 67개소(7.0%)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국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의하면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1,832곳으로, 이 가운데 종교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곳이 개신교에서, 다음이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기독교계 노인복지시설의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데 각 지역별로 최소 1만 명 이상의 장애노인들이 기독교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⁵⁹⁾

그리고 인천, 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엔 불교계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고령화 사회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불교 신자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가 미비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계의 노인요양시설의 지역편중 현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의료복지시설을 자체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타종교와는 달리 시설위탁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하겠다.

불교계 노인요양시설은 해방이후 부산 정화양로원을 시작으로 대구 화성양로원, 부산 영락양로원, 제주양로원, 보문중 시자원 외 진각종 청도기도원, 범수선원 생활시설, 성불원에서 원주시립복지원, 울산 유란양로원, 군산 수심양로원, 해명양로원 강릉시립복지원, 부산불교자선원로원, 흥국사 원로복지원, 부처님마을 자광원, 파주 진인선원, 경남 천불사 노

59) 권경임(2004) p.190.

인복지원, 청련사 대성양로원, 경북 정혜원, 전남 화순 호산마을, 칠보사 온양복지원 순으로 운영해 왔는데, 현재까지 불교계 시설로 운영되는 곳은 약 20여 개소 정도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 희망원은 해남 선희노인요양원 및 선혜정신요양원을, 연꽃마을에서는 2002년 노인요양시설인 안성 감로당 시설을 각각 개방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최신 의료기구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⁶⁰⁾

이 중 불교계의 노인복지사업을 이끌어 온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과 ‘인덕원’을 들 수 있다. 1989년 설립된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에서는 노인요양원과 노인전문병원 등 70여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재가서비스도 제공해 불교노인복지사업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1994년 법인을 설립한 인덕원(이사장 성운스님)은 96년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99년 서울시립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 치매노인단기보호소 및 주간보호소 등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히 조계종의 경우 각 교구본사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하여 일부는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신흥사가 2005년 춘천반야 실비노인요양원을 교구본사 최초로 건립하였으며, 2006년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이 개원하였고, 동화사노인요양원, 백양실버타운, 불국성림원, 영은사노인요양원, 월정사노인요양원, 은해사포근한집, 직지사노인요양원 등 교구본사 차원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2001년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한 이래 신안노인전문요양원 등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60) 권경임(2004) p.191

외 보육·청소년·장애인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진각종은 진각사회복지재단 산하에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립노인요양원, 대구보은노인요양원, 인천덕화노인요양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등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천태종 역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해 각 사찰이 지원토록 하여 노인요양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⁶¹⁾

제 4 절 先行研究

佛敎界에서 老人問題와 關聯시킨 研究는 김정자(1994)에 依해 佛敎의 老人福祉實踐을 위한 報恩思想에 관한 研究가 있으나 이것은 《부모은중경》에 孝思想을 근거로 現代的 價値에 맞는 孝의 개념정립에 머무르고 있으며, 김덕만(1994)은 老人福祉에 대한 佛敎的 接近方法의 틀로 《능엄경》의 七處懲心에 나타난 대화법을 불교상담의 事例로 들어 우리 모두가 妄心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淸淨한 本來 마음을 깨달으면 現在의 고통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 老人들의 가장 두려움의 對象인 죽음에 대해 긍정적 思考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용신(1996)의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의 처우현황과 욕구 실태에 관한 研究가 있고, 박남섭(1996)의 佛敎老人福祉施設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研究가 있으며, 具體的으로 老人福祉를 논한 것으로는 김응철(1996)의 佛敎 老人福祉 實態 및 서비스의 방향을 논한 것과 김국

61) 서병진(2010) pp.306~308요약정리.

현(1996)의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영애(2000)의 불교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두식(2005)의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佛敎界에서는 老人福祉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이었으며,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을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本 研究는 高齡社會를 對備하여 佛敎的 思想에 立脚한 代案을 提示하고자 하는 바, 현재 불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을 전망하면서 여기에 對應한 불교노인복지의 실천을 현대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연구범위를 두고, 불교노인복지시설의 運營現況과 問題點, 改善方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佛敎老人福祉施設의 活性化 方案과 示唆點을 摸索하고자 한다.

제 3 장 佛敎老人福祉施設의 事例研究

제 1 절 佛敎老人福祉施設의 事例研究

1. 佛敎老人福祉施設로서의 연꽃마을의 活動

1989년 설립된 연꽃마을(이사장 覺賢스님)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僧侶들에 의해 설립된 ‘불교사회복지법인’이라는데 意義가 있다. 특히 이사장 스님은 ‘孝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의 모토아래 孝 思想을 고취시키며, 불교노인복지를 향한 열정과 역동적이고 개척자적인 리더쉽은 현재의 연꽃마을을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노인복지의 선두주자로 성장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2011년 7월 1일 현재 연꽃마을은 40여개 시설·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특성별로 분류하면, ①노인의료복지사업 ②재가노인복지사업 ③일반복지사업 ④의료사업 ⑤노인문화진흥사업 ⑥기타사업 등 총 6개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시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연꽃마을은 치매나 중풍 또는 기타 질환으로 혼자 살기 힘들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노인요양원(입소인원:20명)을 비롯하여 용인전문요양원(입소인원:100명),과라밀요양원(입소인원:199명),대구보살선원 [너싱홈] (입소인원:100명),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입소인원:148명)등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

연꽃마을은 지역사회 무의탁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가정봉사과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파라밀주야간보호서비스센터(이용인원:20명)를 비롯하여 파라밀노인복지센터(이용인원:60명), 평택노인주야간보호센터(이용인원:20명), 매화노인복지센터(이용인원:21명), 효누리주간보호센터(이용인원:21명), 일산실비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인원:15명), 원미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인원:20명),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인원:20명), 평택남부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인원:20명) 방배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인원:20명), 송파노인복지센터(이용인원:169명) 송파데이케어센터(이용인원:9명), 아현노인데이케어센터(이용인원:20명), 안성시노인주간보호센터(이용인원:21명), 연천주간보호센터, 용인재가종합노인복지센터, 용인가정봉사원과견센터, 송탄노인복지센터(이용인원:50명) 송탄이동급식차량, 송탄이동목욕차량, 신당데이케어센터, 송파문정데이케어센터 등 2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 복지관

연꽃마을은 지역주민과 건강한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으로는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이용인원:일평균800명)을 비롯하여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용인원:1일500명),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용인원:1일1,800명),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이용인원:일평균500명), 평택북부노인복지관(이용인원:1일300명) 평택남부노인복지관(이용인원:1일400명),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용인원:일

평균1,500명), 용인시노인복지관(이용인원:1일1,300명) 연천군노인복지관(이용인원:1일600명)등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4) 아동복지

연꽃마을은 밝고 튼튼한 아동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립 광명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수원시립 우만2동어린이집, 군포시립 매화어린이집, 안산시립 본오어린이집, 서초구립 서정어린이집, 수원아동홈 행복한집 등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5) 경로식당

연꽃마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끼니를 굶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방배경로식당(300명)을 비롯하여 연꽃경로식당(40명) 마포경로식당(280명), 군포경로식당(180명), 건강수라경로식당(120명), 일산경로식당(1,000명), 원미경로식당(340명), 평택북부경로식당(290명), 평택남부경로식당(280명), 수원경로식당(250명), 용인경로식당, 연천경로식당 등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6) 의료사업현황

연꽃마을은 전국 6곳(8개 시설)에서 양방 및 한방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65세 노인들에게 양질의 진료 및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평균 1,200여명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파라밀양한방요양병원을 비롯하여 청주광명의

원, 수원광명의원, 군포광명의원, 대구동구복지의원, 평택북부경로의원, 평택남부경로의원, 일산호수의원(양방), 일산호수의원(한방), 서울(송파) 광명의원, 마포경로의원 등 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꽃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노인 전문병원을 운영함으로써 total care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노인의 집

마포 광명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8) 교육사업

연꽃마을은 質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孝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자 한국효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과 효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의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9) 장애인시설

연꽃마을은 장애인분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요양원) 운영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로 그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사회적응훈련원인 위드커피2호점(평택시 서정동소재)을 운영 중이며 중증장애인요양원(평택시 포승읍 소재)을 신축중이다.

10) 기타사업

연꽃마을은 다양한 사업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송파푸드마켓(이용인원:1일30명)을 비롯하여 송탄푸드뱅크, 평택푸드마켓2호점(이용인원:1일40명), 실버스팀세차사업, 용인시니어클럽, 요인실버인력뱅크 등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도서출판 연꽃마을을 운영하며 연꽃마을 신문을 제작하고 노인문제연구소, 승려간병비지원심의위원회, 노인문화진흥회, 노인용품전시관 등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꽃마을은 지난 20년간 佛敎社會福祉를 向한 열정과 끝없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스스로 보이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 확신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것이 20年 前 無에서 지금의 연꽃마을을 키워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2. 佛敎老人福祉施設로서의 仁德園의 活動

大韓佛敎曹溪宗 三千寺 星雲스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나누는 菩薩行을 實踐하는 것이 곧 修行이라는 불교적 이념과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새겨 중생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지역사회에 심겠다는 뜨거운 원력으로 10년 만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고, 30여 년에 걸쳐 노인·아동·장애인·지역복지의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22개, 지역복지시설 9개, 아동복지시설 5개 등 총 36개의 법인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1) 노인복지사업

인덕원은 노인복지사업에 주력하여 각종 문화와 교육·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게 회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노인전문요양 삼천사 · 인덕원

노인전문요양 삼천사 · 인덕원은 1997년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여 서울시 최초 시범사업으로 치매노인단기보호소를 운영하였다. 시설급여로는 노인요양원 1개소(붓다마을), 노인소규모요양원 2개소(호암마을 · 예수마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관음의집 · 금강의집 · 문수의집 · 미륵의집 · 마리아의집 · 사랑의집)에서 244명의 어르신을 24시간 안정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재가급여로는 인덕재가방문요양센터의 운영을 통해 160명의 어르신에게 가정에서 良質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은 인덕데이케어센터는 38명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가정 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이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사회복지학회, 인덕노인복지연구소, 인덕치매상담센터를 병립하여 운영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의 확립과 實踐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2) 녹번노인돌봄센터

2007년 지역밀착형 소규모요양시설로 설립한 녹번노인돌봄센터는 타 요양시설과는 달리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구축하였고, 입소어르신과 지역주민, 그리고 가족

과 함께 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규모요양시설 ‘자비의집(정원 15명)’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보현의 집(정원 9명)’ 2개 시설과 방문요양 20 case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케어플랜을 통해 어르신 돌봄에 정성을 다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3)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1999년 서울시로부터 수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크게 일반사업과 특성화사업 등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평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 구립역촌노인복지센터

역촌노인복지센터는 전국최초로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시설을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으로 확대하여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 인덕원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수탁하였으며 역촌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아동복지사업

인덕원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포괄적 교육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 개나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996년 수색어린이집, 2001년 불광어린이집, 2006

년 다솔어린이집, 2008년 상림마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3) 지역사회복지사업

인덕원은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은평구립증산정보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구립응암청소년독서실, 희망의집 등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4) 교정복지사업

성운스님은 1978년 矯正教化에 뜻을 세워 수원교도소를 시작으로 강릉교도소, 서울구치소, 서대문구치소 등에서 종교위원으로 30년 동안 참여하여 무연고 재소자 상담·시신수렴·49齋 등 矯正福祉를 통해 재소자心性醇化에 주력하였다. 또한 전국 교도소에 십 만권 佛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사형폐지협의회를 결성하여 헌법위헌제소와 함께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일체중생을 이익 되게 하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초기 설립이념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福祉實踐을 통한 廻向에 專念하고 있다.

제 2 절 實踐事例에 나타난 佛敎老人福祉施設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佛敎老人福祉施設의 問題點

1) 施設 內 提供서비스 不實化 및 非體系化

시설보호서비스는 시설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현행 시설보호내용의 수준은 현실성 있게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재활과 여가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에 관한 항목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시설보호 수준은 국민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항목별 시설노인의 특성을 가미하여 산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정부의 시설 지원방식은 인원비례방식으로 이는 시설의 大型化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2) 施設 職員의 專門性과 職員 數의 不足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시설종사자 중 단순근로직과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급은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위생원, 조리원 외는 모두 생활지도원이다. 하지만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분류되는 상담 및 욕구조사, 프로그램 실시와 평가, 자원봉사자 홍보 및 교육관리, 지역사회 자원개발 업무 등에서의 전문사회복지사는 필수적인데 사회복지사의 직급도 없고

기본일상생활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직원배치도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업무 수행과 시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 시설직원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3) 施設 設備의 未備

노인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인 설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수용시설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사생활의 공간, 일상생활 동작훈련실, 재활 운동실, 기능회복실, 휴식공간, 상담실, 오락실, 영안실, 취미생활공간 문화 생활공간 등을 마련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施設 數의 絶對 不足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절대 부족하다. 2006년 末 기준 전체 인구 구성비에 대한 노인인구는 7.3%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0.5%에 대해서만 시설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수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은 수요에 적절한 수가 적합한 지역에 배치되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적정 수가 산출되어야 한다. 또한 한 시설 당 적정인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특히 시설노인에 대한 專門的인 서비스 제공과 사생활 보장, 집단적 처우에 따른 運營의 合理化가 調和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운영주체는 거의 모든 기준시설이 민간운영으로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운영 주체는 각 시도별, 시설유형별로 공공운영의 시설 수를 늘려서 公私 상호 협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프로그램의 未備

사람이 의식주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불교노인복지시설에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성격과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설비의 여유, 직원의 전문성과 熱意,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 유관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 시설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야 하며 欲求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佛敎의 特性을 살린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실시해야 한다.

6) 施設 評價의 問題

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실시 배경은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 검증과 정부지원금의 효과성 확보며, 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실시 의의는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구호시설에서 수용시설로 전환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의 복지시설 실현의지와 계획을 먼저 밝혀야

하며 오랫동안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호 시설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금도 비현실적인 정부지원금과 사회복지사 직급조차도 없는 직원배치 기준에서 수용시설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 자긍심과 비전을 줄 수 있는 평가실시의 배경과 意義를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2. 佛敎老人福祉施設의 改善方案

曹溪宗의 各 本寺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고운실비요양원, 동화사노인요양원, 백양실버타운, 불국성립원, 영은사노인요양원, 월정사노인요양원, 은혜사포근한집, 직지사노인요양원 등과 여러 불교요양시설의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본 불교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노인복지시설과 거의 일맥상통했다.

(1) 위탁시설의 경우, 기독교계 시설은 담당관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포교행위를 하는데 비해 불교시설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불교적 색채를 나타내지 않는 실정이다. 불교적 거부감이 적은 참선이나 명상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으로 運營의 妙를 살릴 필요가 있다.

(2) 불교계 시설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개발이 어렵다고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사업적으로 바뀌면서 후원자가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개신교, 천주교 봉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자들에게 교리를 통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교는 菩薩行을 實踐하는 宗教이기 때문이다.

(3) 직원 채용 시 어려움이 있다. 불교적 색채로 인해 직원 채용 공고를

내면 입사원서가 적다고 한다. 기독교 법인은 교인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은 반면 불교법인은 기독교 신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문을 개방하여도 지원자가 적은 실정이다. 이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밖에 해결책이 없다. 직원문제에 있어 종파를 벗어나는 것이 많고 호응이 안 되고 있어 불교적 mind를 고취해야하나 실천이 미약하다. 대불련 조직을 활성화시켜 충원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불교종단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교사회복지사 배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불교적 색채로 인해 관계 유관기관, 후원단체 결연에 제약이 많다고 애로점을 호소하지만 이는 다양한 운영의 묘를 살려 극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5) 직영시설이 너무 적다. 불교계는 재정문제와 원력의 부족으로 위탁 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탁시설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운영 능력을 불교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6) 불교특색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다. 현재 송가대학이나 동국대에 서초차 불교사회복지론 강좌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 겨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성운 스님의 원력으로 2010년부터 강의가 개설되었다. 학문적 뒷받침이 없어 프로그램 시비가 되고 있다. 종단차원에서 전국 불교사회복지 대회를 열고 용역을 주어 발표를 해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의 효과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논문이 많지만 아직 불교사회복지학회가 없는 실정이다. 학문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7) 불교의 자비사상을 복지현장에서 실천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함만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8) 불교 타이틀(title)을 가지고도 타종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직

원들의 비전(vision)과 mind가 부족하다.

불교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미비나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인구 중 불교인구가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人間에게는 누구나 生老病死의 苦痛이 있으며, 老人에게는 孤獨, 無爲, 疾病, 貧困의 네 가지 고통이 있다. 이러한 老人問題는 노인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비해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교신자들 가운데 노인들이 많은 데 비해 노인복지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活性化해야 할 복지사업 가운데 한 분야라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유료시설이지만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용이 지급되고 자기에겐 적합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권한부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국가에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민간복지재단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수십 곳 정도 전국적으로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교계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노인요양시설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운영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佛敎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복지시설과 노인들의 장기요양이나 치료를 위한 의료복지시설(너싱홈)을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노인들의 소득정도나 생활수준에 따라 무료나 실비, 유료시설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노인양로시설

이나 장기요양과 치료를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지역사회 재가노인들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方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프로그램에 佛敎的 特色을 살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건축 설계 시 내부구조에 法堂인 명상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배치하여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운영에서도 경영과 복지마인드의 겸비로 運營의 合理化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⁶²⁾

62) 권경임(2004) pp.193~203요약정리.

제 4 장 老人福祉實踐에 있어서 佛敎老人福祉施設의 役割과 機能

제 1 절 佛敎老人福祉施設의 서비스

1. 佛敎老人福祉施設 運營의 多樣化

우리나라는 高齡化 現象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는데 반해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노인복지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불교계는 이용시설에 비해 생활시설이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⁶³⁾을 운영할 경우에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복지시설과 만성질환 노인들의 장기요양과 치료복지시설(너싱홈)이 복합적인 서비스 시스템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소득정도나 생활수준에 따라 무료나 실비시설, 유료시설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 장기요양과 치료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지역사회노인들의 재가복지를 위한 주간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연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63)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있으며, 수익자 부담 여부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 시설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있다.

2. 施設福祉와 在家福祉 서비스의 連繫

시설복지와 재가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병행해서 운영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는 방문간병과 수발 및 일상지원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방문 및 통원재활, 재가요양관리 및 지원, 주간보호(day care), 단기보호(short stay),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지원, 그룹홈(치매나 학대 및 방임노인 공동생활 지원), 케어플랜 작성 지원서비스(케어매니저가 서비스 계획을 작성) 등이 있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서비스는 노인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대치 또는 보완해 주는 서비스이고 지역사회보호의 핵심적 서비스이며 노인을 보호하는 연속적 보호체계(Continuum of Care)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장소가 가정인 경우는 가정보호(Home Care)이고, 지역사회인 경우는 주간 및 단기보호를 받는 것으로, 가정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주간 및 단기보호) 그리고 시설보호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보호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효사 효림원의 경우 수행과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 도심에 ‘효림노인 복지센터’를 개소하고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케어와 상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대학 운영과 간병회 및 상조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는데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 교구본사와 소속 사찰들의 積極的인 參與가 필요한 시점이다.

3. 佛敎 프로그램의 特性化와 普遍化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인간다운 삶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만이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욕구충족, 정신적 만족감을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佛敎界의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보편화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노인의 특성이 잘 고려된 프로그램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노인의 기능·인지능력에 맞는 개인적 접근이 용이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불교적 특성을 살리면서 우리의 정서나 문화에 맞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자와 일반노인들을 위한 상담과 경로대학이나 은퇴교실 등을 통한 교육, 여가와 취업알선, 정보제공 및 후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불교계는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호스피스활동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노인들은 질병과 죽음에 직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성공적인 노후설계와 더불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여생을 意味있고 平安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돌보고 그 가족들이 죽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임종지도를 할 수 있는 호스피스가 活性化되어야 한다.

최근 천태종에서는 불교호스피스 봉사단을 조직하고 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을 양성하고 호스피스 책자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하고 있으나 가톨릭이나 기독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활발하게 호스피스 기관을 운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종교교리에 입각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

는데 비해 불교계의 참여가 적은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은 “佛敎思想을 바탕으로 한 노인프로그램이 현재 거의 없다”며 “사찰이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노인그룹홈이나 염불당, 경로식당, 노인무료진료소, 역사탐방반 등을 운영하거나 사찰의 환경정리 및 미화작업이나 채전 가꾸기 등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方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4. 佛敎社會福祉의 發展方向

1) 各 宗團의 獨立된 佛敎社會福祉 機構設立

조계종의 경우도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독립된 불교사회복지원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정보, 지원, 사찰의 특수여건(국립공원, 그린벨트)을 극복하고 사찰의 특성과 불교의 사상을 살릴 수 있는 實踐方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自願奉仕者 育成 管理의 體系化

사회복지의 성패는 자원봉사자의 효과적인 활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계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발굴,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적 편중을 조정하는 등 관리를 체계화 한다.

3) 多様な 物的 資源의 確保

각 사찰에서 사회복지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자회, 이벤트사업, 기금모금, 수익사업 등 다양한 물적 자원을 개발하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순수 민간차원의 모금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공동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다양하고 科學性을 높이도록 한다.

4) 從事者 人力資質의 向上

불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훈련, 정보교환, 질적 향상을 통한 자긍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僧侶들도 직접 복지서비스에 나서고 불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불교사회복지는 주목할 만한 급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불교와 복지를 통합한 불교복지에 대한 정체성의 측면과 일반사회복지와 타종교 복지와의 차별성 측면에 있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붓다는 교화하는 과정에서 일체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생명존중·자비·보시·복전사상으로 순수한 민간적인 자선구제사업을 행했고, 또 아쇼까王은 통치하는 과정에서 붓다의 사상을 이어서 救濟活動을 했으며, 사회생활상의 편익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익사업과 지역개발 내지 일반 공공복지사업을 행하였다. 아쇼까王은 붓다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일체 중생의 苦痛을 여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拔苦與樂의 精神

을 각종 제도와 법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실행에 옮겼다. 불교복지의 正體性 定立을 위해서는 붓다와 아쇼카왕의 福祉思想인 生命尊重·慈悲·布施·福田思想을 確立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교복지의 正體性 確立을 爲해 ① 各 宗團의 사회복지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설립·운영 ② 불교 정신복지의 개발과 상담의 활성화 ③ 위탁시설 內 불교복지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 ④ 종립대학교(서울캠퍼스)의 사회복지학과의 신설과 불교전문복지사 양성 ⑤ 지역사찰 단위 신도중심의 자원봉사 센터의 설립과 적극적인 복지참여 유도 ⑥ 종단 차원의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 ⑦ 인적·물적·기술적 불교복지 network의 구축 및 확충 ⑧ 각 종단 복지시설의 活性化를 위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재가자·출가자·참여자들은 아쇼카大王(Emperor Aśoka)의 복지 마인드인 일체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行하는 모든 것은 前生에 지은 빛을 갚으려는 報恩慈悲思想에 입각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천함으로써 붓다의 이상세계인 佛國淨土를 실현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⁶⁴⁾

64) 서병진(2005) pp.157~158.

제 2 절 佛敎老人福祉施設과 宗團의 關係

1. 直營施設 確保 및 運營方案

佛敎老人福祉의 運營방식을 살펴보면 교구본사나 단위사찰에서 종단의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찰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위탁운영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찰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법인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관계없이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찰에서 지원사업의 형태로 자원봉사교육 및 파견 사업이나 지역시설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찰 중에는 이러한 직접운영과 간접운영의 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佛敎界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法堂을 마련하고 佛敎의인 特色을 살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위탁시설의 경우 특정종교의 프로그램 시행은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위탁시설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받게 되므로 운영에 자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설 확보와 운영방안을 늘려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웃 종교는 전 수입액의 45%까지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교단도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교구본사 예산의 10%, 총무원 예산의 20%이상은 사회복지사업비로 책정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佛敎老人福祉의 傳達體系 擴充

佛敎界의 노인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遂行하고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확충이 필요한데 종적인 전달체계로는 종단의 사회복지재단과 교구본사 및 단위사찰의 산하시설 간에 전달체계가 세워져야 하고, 횡적인 전달체계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로 이루어진 노인복지협의회가 결성되어야 하며, 불교계의 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재가복지서비스 간에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나 자치단체와 사찰 간에 산학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협력 사업으로 사회복지현장 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병원은 노인전문인력의 養成, 再教育의 場으로 활용하는 方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3. 社會福祉 供給體系에서의 位相定立

사회복지가 생활보호를 위주로 하던 시기와는 달리 사회복지대상자가 증가하고 그 욕구도 다양화·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차원에서 사회복지가 이해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대상자의 프라이버시나 가치관과 관련되는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의 가치관이나 동양인 특히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는 公的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부터 다원적 사회복지공급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즉 기업 내의 사회복지, 시장교환에 의한 사회복지가족·이웃·자원봉사·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교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불교사회복지의 선도적 역할정립을 하여야 한다.

4. 佛敎老人福祉 施設의 社會化

시설운영자는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설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금까지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하여 시설의 사회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시설운영자들은 시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과행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시설의 사회화는 중요하다. 施設의 社會化란 正常化, 社會統合, 脫施設化地域社會保護와 함께 시설의 한계를 극복 내지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실행, 정착되어야 한다.

제 3 절 制度的 次元의 支援體系 強化

1. 人的·物的 資源의 確保와 制度的 支援

불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유료시설도 있지만 대부분 복지혜택을 적게 받는 저소득층 요양대상자들을 위한 무료시설이나 실비시설인 경우가 많은데, 실비시설은 次上位 계층이나 일반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지원금과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 등으로 운영비가 충당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도 있으나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 아이템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료시설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없이 시설의 입소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료시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運營의 合理化를 기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유료시설의 경우 도시에 인접한 경우는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전원형이나 산속에 있는 경우는 실패한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⁶⁵⁾

따라서 시설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단이나 교구본사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각 사찰의 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각 사찰별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職員의 增加 및 人件費의 現實化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시설직원 배치기준과 직원 인건비의 현실화다. 현재의 시설직원 배치기준과 직원인건비로는 시설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직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직원의 인건비는 유사업종의 비교가능한 부분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직무의 난이도, 성과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세분화하고 또한 공무원 수준의 각종 복지제도와 수당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규정한 직원 배치기준의 시설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적어도 정부가 스스로 정한 직원배치기준 규정의 시설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제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65) 권경임(2004) p.202.

2) 施設評價에 대한 合理的인 基準 提示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접근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법인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합리성, 개방성을 우선 확보해 나가면서 이와 함께 정부도 복지시설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위주의 시설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이를 시설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質의 向上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현대국가들의 복지국가 및 복지사회 실현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고 정부의 책무며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최종적으로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란 재정이 충분한 국가와 지방정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이란 국가나 정부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국가나 정부는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나 정부가 공급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써 시설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 구호시설에서 겨우 벗어난 수용시설 수준이다. 국가와 정부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직원 및 시설지원의 현실화)없이 진정한 복지시설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豫防과 增進서비스의 佛敎 役割

예방적 서비스는 요 보호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서비스를 말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사회복지정보제공, 사회복지상담활동, 건강교육, 식생활개선, 주거생활개선, 조기육구발견, 장애인발생방지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특정된 생활위험이 진행되어 곤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지원하여 그 곤란의 진행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방과 증진서비스의 내용은

- ① 문제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정보교환이나 연락망 형성
- ② 서비스의 원활화나 처우방침결정의 신속화
- ③ 사회참가조건 형성(계단 없애기, 복지화장실, 복지엘리베이터증설, 점자안내판 설치 등)
- ④ 삶의 보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취업, 문화, 오락, 스포츠, 취미, 레크레이션 등의 활동과 기술습득을 위한 강좌, 작품전시장 개설 등)
- ⑤ 구-롭조직을 위한 지원(같은 고민이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고통의 공유화, 사회화 등의 효과가 있음)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 영역이 佛子들의 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3. 佛敎老人福祉施設의 擴充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수를 균형 있게 지역별로 늘려야 하며 시설의 유형도 더욱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야 한다. 즉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확충해 나가야 한다.

4. 施設保護서비스의 內容 向上

현재의 시설보호서비스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특히 재활과 여가 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에 관한 항목의 신설도 고려해야 하며 시설보호 수준은 국민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시설노인의 특성을 가미하여 산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의 시설 지원방식은 인원비례방식으로 이는 시설의 대형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설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기준을 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현재 단순한 생계보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용보호시설에서 법률상 규정으로서의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 복지시설, 재가 복지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실질적인 복지시설로 만들고 그 책임은 시설이 아닌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

5. 政府 및 宗團의 責任性 強化

노인복지시설의 재정부족과 설비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에 있어 그 책임을 시설이 아닌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져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단지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즉 사회복지 실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으며 시설은 사회복지 실천에 필수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뿐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불안정한 시대였던 1950~6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요보호노인을 개인 또는 종교 단체 등에서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힘들게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이러한 시설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재평가 되어야 하며 이제라도 시설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宗團도 시설의 자발적인 재정책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5 장 結論 및 提案

人間에게는 누구나 生老病死의 苦痛이 있으며, 老人에게는 孤獨, 無爲 疾病, 貧困의 네 가지 苦痛이 있다. 이러한 老人問題는 노인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高齡化와 核家族化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老人問題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비해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高齡社會 進入을 앞두고 老人福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佛敎信徒들 가운데 노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교계에 노인복지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앞으로 活性化해야 할 福祉事業 가운데 한 분야라고 하겠다.

古代로부터 社會福祉는 宗教와 더불어 發展해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佛敎와 더불어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絶對的 貧困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경제적 성장만을 국가발전으로 생각하는 위정자들 때문에 사회개발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대에 오히려 경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要保護者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 가운데는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풍조까지 생기고 있으나 老人問題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自覺이 必要하다.

오늘날의 老人問題는 주로 社會의 變化와 국가의 豫防對策 不在로 惹起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서 대책을 시급히 積極的으로 세워 施行해

야 한다. 국가가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認識하지 못하고 安易하게 對處한다면 결국 선진국의 試行錯誤의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것이고 국가와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국가는 高齡化 社會에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老人問題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老人의 幸福은 곧 이 社會의 幸福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高齡人口의 증가와 低出産의 영향으로 이미 高齡化 社會에 진입하였고, 이와 같은 고령화 속도라면 2050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超高齡社會가 되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므로 國家的 次元에서도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공공부문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敬老孝親과 가족책임의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회복지를 전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宗教界의 參與가 必要하다.

佛敎界에서도 고령화 사회의 대응방안의 하나로 일반인이나 불자, 그리고 승려노후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노인들의 주거복지와 의료복지를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지역사회 재가복지서비스를 연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佛敎的 特色을 살려 特性化와 普遍化가 잘 調和될 수 있도록 運營의 妙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佛敎老人福祉事業의 現況에 대해 살펴보고 慈悲를 根本으로 하는 佛敎界에서는 어떻게 對處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提言을 하고자 한다. 붓다께서 말씀하시기를, “菩
薩은 衆生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셨다. 衆生救濟가 곧
佛敎의 實踐이기 때문이다.

佛敎老人福祉施設의 現況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의 委託運營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불교계는 利用施設보다 生活施設을 늘리고 위
탁운영보다는 자체시설 확보와 운영에 힘써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이 도
시에 비해 지방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불교
신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老人에 대한 복지가 活性化될 수 있는 方
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축 설계 시 내부구조에 法堂이
나 冥想을 할 수 있는 文化的인 공간 배치로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사찰이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을 살리고 相生을 위한
自然親和的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경영
과 복지마인드의 겸비로 運營의 合理化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佛敎界에서 老人福祉施設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불
자들의 意識이 전환되어야 하고, 宗團次元에서 支援體系를 갖추고, 종단
과 교구본사, 단위사찰 간에 네트워크 구성으로 福祉傳達體系가 구축되
어야 한다. 또한 종단차원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專擔機構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며, 종단이나 중립학교 부설로 老人福祉
研究所를 運營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
여하고, 自體施設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財政確保 및 老人專門人力
陽性化方案에 따른 人力需給 方案도 마련되어야 한다.

佛敎界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本文에서 提示한 것처
럼 건강한 노인들의 주거복지시설과 노인들의 장기요양이나 치료를 위한

醫療福祉施設(너싱홈)을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노인들의 소득정도나 생활수준에 따라 무료나 실비, 유료시설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노인양로시설이나 장기요양과 치료를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지역사회 재가노인들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연계하여 利用할 수 있도록 運營하는 것도 方案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복지가 여러 가지 科學的 技術을 발휘하여 각종 제도에 의한 經濟的 援助나 여러 社會問題에 대한 많은 解決을 하고 있으므로 佛敎社會福祉에서도 이런 것들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人間苦의 根本的인 理解와 아울러 人間의 本性을 淨化하여 올바른 人格을 形成시키고 거기에 의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한 慈悲의 實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佛敎社會福祉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佛敎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이 時代에 어떤 責任을 지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反省과 自覺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자각이 불교계에서 생각만이 아닌 積極的인 實踐行으로 具現될 때 우리는 참다운 佛子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佛敎는 우리 民族과 더불어 함께해온 魂이자, 우리의 삶이었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는 佛敎와 더불어 함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억불정책 이후 불교의 침체가 佛敎社會福祉의 침체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고 불교가 제 役割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佛敎의 根本은 菩薩行의 實踐에 있지만 안일하고 타성에 젖어 급변하는 現代 產業社會의 狀況에 대처하는 능력에 뒤처졌고 宗團과 僧侶들의 無關心에서 비롯되었다.

부처님을 업고 經典을 이고 한 平生을 가더라도 衆生 한명을 救濟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게 헛일이라는 偈頌과 같이 衆生에 대한 뜨거운 憐愍이 없는 깨달음이란 無用之物이며 大悲의 實踐이 없는 思辨的 理論은 한낱 메마른 哲學的 思考에 불과한 것이다.

社會는 佛教의 眞理性 앞에 調伏하지 않는다. 오히려 慈悲의 實踐行에 감격하며 또한 그것이 宗教에 대한 社會的 評價의 基準이 되기도 한다. 佛教의 慈悲思想의 實踐이야말로 진정한 佛陀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原典類>

- 『한글大藏經』 「本生經」 권5, 동국역경원.
『大正藏』 T.1, 「起世因本經」
『大正藏』 T.12, 「大般涅槃經」
『大正藏』 T.10, 「大方廣佛華嚴經」
『大正藏』 T.32, 「大乘集菩薩學論」 권2, 集布施學品제1- 2.
『大正藏』 T.25, 「大智度論」
『大正藏』 T.9, 「妙法蓮華經」
『大正藏』 T.12, 「佛說無量壽經」
『大正藏』 T.26, 「佛地經論」
『大正藏』 T.14, 「維摩詰所說經」
『大正藏』 T.2, 「雜阿含經」

<單行本>

- 권 승(2009), 『사회문제론』 공동체.
권경임(2004), 『불교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金萬權(1975), 『佛敎學入門』 삼영출판사.
김태현(1995), 『노년학』 교문사.
박광준(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사단법인 연꽃마을(2003), 『효인식 및 실천에 관한 조사분석』 연꽃마을 출판부.
서병진(2008), 『노인복지론』 솔바람.

- 서병진(2010), 『불교사회복지론』 솔바람.
 성규탁(1995), 『새 시대의 효』 연세대출판부.
 윤호진(1992), 『무아·윤회문제의 연구』 흥법원.
 황진수(2005), 『현대사회복지론』 대영문화사.

<學位論文>

- 강남석(2000), 「불교복지사상에 관한 서설적 연구」 대전대 석사논문.
 권경임(1998), 「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김국현(1996),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 석사논문.
 김두식(2005),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박남섭(1996), 「노인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서병진(2005), 「아쇼까왕의 福祉思想研究」 동국대 박사논문.
 송준영(1996), 「불교사회복지사상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이혜숙(1995), 「불교사회복지학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전재성(1995), 「초기불교의 연기성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정병조(1987), 「문수보살의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조용신(1996), 「불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처우현황과 욕구실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홍영애(2000), 「불교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동국대 석사논문.

<一般論文>

- 중앙승가대 사회복지연구소(1994), 1994.불교의 노인복지사상 일고찰, 불교와 사회복지 창간호.

<學術誌>

고경환(2011),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조사연구, 불교사회복지연구 제10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임해영(2005), 불교사회복지 개념 재구성, 불교학연구12호, 불교학연구회.

정경희 외(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홍봉(2004), 노인복지시설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其他>

사단법인연꽃마을(2009),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연꽃마을 출판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011년 인터넷 연합뉴스.

ABSTRACT

A Study on the Practical Plans for the Aged Welfare

- Focused on the buddhist aged welfare center -

Sinn, Young-Deuk (Hyo-Dam)

Department of Buddhist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Korea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nto an aged society, as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increase due to the extended life expectancy while the birth rate decreases. Coupled with the problems caused by the breakup of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and the rising cost of caring for the elderly, the aged society problem is now becoming a national issue. It is clear that a dramatic paradigm shift is necessary in the area of senior welfare.

It is ironic that while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is enjoying perhaps the most materialistic wealth and prosperity in its history, the seniors are feeling the most stress. The reason for this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rapid-paced capitalistic modernization that went on over the

past 50 years.

The recent advancement in technology and capitalism certainly enabled human well being and materialistic wealth. However, the abundance of materialism, causing the trivialization of life and the increased level of feeling poor, is becoming one of the major factors in making the people feel miserable.

The government is doing what it can to achieve the welfare of society where the people are healthy and happy. As a society, the need for the increased role in social welfare played by non-government entities is rising, and the expectation level is getting higher. In this context, it is worth noting the active role the Buddhist community is playing in the social welfare. Considering “Yo-Ik-Chung-Saeng” [Profit to the people and the society],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Buddhism, the Buddhist groups’ role and responsibility become even more importan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in propos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aged-society issu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uddhist thought. Hence, we investigate here the current status in the management of Buddhist senior welfare facilities; any problems; possible ways of improvement; as well as the means to make the operation more active.

For the Buddhist-run senior welfare facilities to become more active, the understanding of the individual Buddhists toward senior welfare needs to change first; the support system needs to be formulat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a strong welfare

network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between the top level of the Buddhist organization and the regional parish office temples, as well as the individual temples. In addition, a long-term plan should be prepared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 exclusive organization should be installed, to develop guidelines on senior welfare issues; and the research centers on senior welfare should be set up under the order-run schools. An active participation is necessary in founding and managing the senior welfare facilities. Pre-planning should be done to secure necessary funds and resources to equip the facilities and run them. Also, the plans for the suppl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nticipation of the entering professional senior workforce.

The basic teaching of Buddhism is “Ja-Bi”[Compassion]. Since the most fundamental idea in Buddhism is the carrying out the compass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a majority of Korean Buddhist population are seniors, it is a necessity for the Buddhist community to actively take a lead initiative in the senior welfare. While it is true that the Buddhist social welfare has seen a tremendous advancemen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erefore, it is high time for the Korean Buddhist community to show sincere interest in the senior welfare, which is among the most important social issues of today.